

中央藥大 同門會報

The Alumni News of th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봄

2009년 24호



cau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http://www.caupharm.or.kr>

Contents

2009년 제 24호 봄

시론

3.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와 약사의 역할

| 김 구 | 대한약사회장

4. 학장 인사말

| 김 대 경 | 중앙대학 약학대학 학장

동문회 소식

5. 회장단회의

6. 제38회 모교의 날 체육대회

8. 학위수여식

동기별 소식

10. 7회 졸업45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 배 동 운 | 7회 동기회 총무

12. 졸업40주년 행사를 마치며...

| 이 정 구 | 12회 동기회 총무

14. 74학번 졸업 30주년 후기

| 최 광 훈 | 22회 전 동기회장

16. 27회 동기회 소개 및 동정

| 현 기 원 | 27회 동기회장

17. 사랑하는 동기들

| 이 경 우 | 32회 동기회장



학교소식

18. 약학관 착공식 및 2009년도 신입교수 프로필

문학산책

20. 라일락의 추억

| 정 영 기 | 10회 동문

22. 歸園田居(귀원전거)

| 허 인 회 | 4회 명예교수

23. 만평

| 김 기 명 | 18회 분지 편집위원

약국도움이야기

24. 우리 몸은 따뜻해야 산다

26. Trail Inca to Machu-Picchu

| 조 영 만 | 3회 동문

28. 회원동정

30. 발전기금 조성내역

34. 동문회비 및 기금납부자

35. 편집후기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와 약사의 역할



김 구(12회) 대한약사회장

보건의료에 있어 약사직능의 위치는 여러 사회적 변화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약사직능의 변화를 이해하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2000년 의약분업 실시로 의사와 약사 직능에 있어 정확하게 직능이 구분되었다. 의약분업 이전에 의사와 약사가 환자를 중심으로 둔 상호간의 중첩된 전문 직능(진단 및 투약)에서 각자 고유의 전문 직능을 바로 세워 국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BT혁명과 게놈 프로젝트에 의한 새로운 신약의 등장과 맞춤형 약제서비스의 개발 및 환자에 대한 새로운 치료기술의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다. 이런 변화에 근거해서 새로운 직능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직능은 그 영향력이 줄어들게 된다. 약사직능의 위상에 있어 변화의 수용과 적응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큰 영향을 주는 변화는 저출산과 함께 빠른 고령화 현상이다. 고령화 사회는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가 7%를 넘어서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며 노인인구 구성비가 14%를 넘어서게 되면 고령사회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단지 18년이 걸리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24년, 프랑스의 경우 12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빠른 것이다. 고령화로 인해 의료서비스 비용이 증가하고 의료서비스 내용이 변화하고 보건 의료계 내부의 구조도 변화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다.

의료환경에 있어 e-헬스는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특히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건의료부문과 인터넷이 결합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진료중심의 의료에서 예방중심의 의료로 변하고 있는 의료 서비스에 있어 e-헬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약사직능의 가장 우선은 복약지도이다. 복약지도는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에 명문화되어 있는 약사의 의무이자 약사의 고유한 권리이다. 또한 약사 직능 본연의 임무를 실천하는 것으로 복약이행도를 향상시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환자가 유효하고 최적의 안전한 약물요법을 불안감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 조언을 행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의약분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제도의 정착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약사의 처방검토와 복약지도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약사의 복약지도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표준화 과정이 중요하다. 표준화와 더불어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실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약사의 역할은 DUR로 미국 연방법 OBRA'90에 "의약품사용평가(drug utilization review)는 의약품의 처방이 적절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며 부정적인 의학적 결과를 낳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약사법 제23조(처방의 변경 수정) 2항에 보면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에게 문의하여 그 의심나는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된다.

의약품사용평가의 주요항목을 보면 ▶치료중복 ▶약물-질한 금기사항 ▶약물간 상호작용 ▶부적절한 약물용량 ▶부적절한 투여기간 ▶약물-알레르기 상호작용 ▶임상적 남용과 오용 등과 같다. 처방조제에 있어 약사 본연의 기능이 DUR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라면 DUR 정착 이후에 처방검토의 더욱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기능도 약사의 직능으로서 평가 받게 될 것이 분명할 것이다. 의약품 사용에 대한 적절한 평가 과정이 바로 약사의 역할이다.

환자의 약력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특히 한 곳의 의료기관만을 이용하는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일차적인 약력관리가 가능하지만 여러 곳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동시에 여러 의료기관의 처방약을 복용하게 될 경우 약력관리의 중요성은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매우 강조되게 된다.

약사는 환자나 국민에 대해 의약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근원적인 직능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약사는 부작용의 초기증상 중에 환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증상을 설명하고, 그 증상이 나타나면 약의 복용을 중지하고 곧바로 의사나 약사에게 상담하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관련 전문가 집단의 직능도 변화하게 된다. 약사의 직능도 마찬가지로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약물선택의 조력자 역할에서 약물선택의 결정자로서 약사직능이 자리하게 될 것이며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사용에 있어 Gate Keeper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약사직능은 지금까지 의약품(제품) 지향적 사고에서 환자 중심의 사고로 전환하여 규격화된 서비스에서 맞춤형 서비스로 새롭게 구축되어 갈 것이다. 단순한 치료중심에서 예방 및 건강증진(Health Promotion)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며 의약품 사용 전반의 관리자(Manager)로서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약사직능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김대경

글로벌 리더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친애하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 여러분!

희망찬 기축년 새해와 함께 새 학기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동문회보를 통해 신입학장으로써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모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랑 덕분에 많은 발전적인 변화와 함께 후배 교육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 또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교는 지금까지 7,000여명의 학사, 1,000여명의 석·박사 졸업생을 배출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 수준의 명문대학으로 부단한 발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약업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사회 각계각층에서 약의 전문인으로서,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2009년 3월 약대 6년제가 출범하여 약학대학의 학제가 6년제로 전환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입학생을 뽑지 않았지만, 앞으로 약사의 전문성이 보다 심화되고, 사회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급변하는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의로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국가 신성장 동력 분야로 선정된 제약산업 육성에도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새로운 교육체제와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대학교는 지난해 6월 새로운 재단이 학교 운영을 맡으면서 금학기초 새로운 교무위원을 구성, 이미 결정된 연봉제를 시작으로 초일류 대학을 향한 개혁 의지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향후 모교 발전의 기틀이 될 약학과 R&D관 신축 공사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11년 3월부터 6년제 제1회 입학생과 함께 새 건물에서 강의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재단의 학교발전 의지와 뜻을 받들어 학장으로써 모교 발전과 후배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지금까지 동문들이 쌓아 놓은 빛나는 전통과 사회적 평판을 유지·발전시키고, 이를 발판으로 초일류 약학대학으로 발전해 나아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학기금운영위원회

- 일 시 : 2008년 9월 18일 오후 1시
- 장 소 : 모교 약학대학장실
- 참석자 : 유정사 회장, 손의동 학장, 김기홍, 임완호, 유영후, 권혁구 고문, 이경옥 여동문회장, 정찬헌 사무총장



초도이사회

- 일 시 : 2008년 11월 29일-30일
- 장 소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505-8(그래미 연수원)
- 안 건 :
 - 경과보고
 - 2008년도 사업계획의 건
 - 기타토의 사항



신년교례회 및 제9차 회장단회의

- 일 시 : 2009년 1월 10일 오후 6시
- 장 소 : 동문회관
- 안 건 :
 - 회장단 여행 준비의 건
 - 동문회 현안의 건
 - 기타토의 사항



여동문회 월례회

- 일 시 : 2009년 2월 25일 오전 12시
- 장 소 : 동문회관
- 안 건 :
 - 상반기 여동문회 사업의 건
 - 제11대 여동문회 임원추천의 건
 - 기타토의 사항



장학기금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 일 시 : 2009년 3월 17일 오전 12시
- 장 소 : 반포 미야끼
- 안 건 :
 - 2009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의 건
 - 동문회 장학기금 현황보고의 건
 - 동문회 현안의 건
 - 약사회 현안의 건
 - 기타토의 사항
- 참석자 : 유정사 회장, 김대경 학장, 오세형, 최종묵, 김채윤, 임완호, 임상목, 권혁구 고문, 이경옥 여동문회장, 정찬헌 사무총장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제38회 모교의 날 체육대회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제 38 회 모교의 날 체육대회가 10월 12일 중대부속중학교 운동장에서 40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대회를 열고 모교 발전과 동문회 발전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체육대회, 명랑운동회, 홈커밍데이 순으로 이뤄졌다. 유정사 회장은 대회사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선후배 및 동기들과 일체감을 확인하고 정감어린 대화를 나누고 모교를 사랑함과 동시에 약사됨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시간을 갖는 날"이라며 "한 해 한 해 더해 갈수록 두터운 참여가 이뤄지는 모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 김명섭 명예회장, 조찬휘 서울시약사회장, 박기배 경기도약사회장, 송경희 부회장, 김정수 이사, 최철화 상임부회장, 오세형, 최종묵, 김채운, 임완호, 유영후, 권혁구 고문과 김종갑, 김일혁, 손동

현, 허인희, 임철부 명예교수, 손의동 중앙약대 학장 및 모교 교수들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체육대회로 먼저 9월 8일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총 20팀(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부의 종합우승은 안양지부, 2등 고양지부, 3등 성남지부가 차지했으며, 동기회 종합우승은 20회, 2등 26회, 3등 19회가 수상의 영광을 가졌고, 개인수상으로는 1등 이신규(20회), 메달리스트 김현태(20회), 2등 정찬현 (20회), 3등 함삼균(25회) , 4등 윤광중(26회) , 행운상 김정부(7회)

서코스 롱게스트 장호성(19회), 니어 박기배(20회)

동코스 롱게스트 강의석(36회). 니어 강순철(28회)

레이디상 : 이강옥(26회), 윤미숙(30회), 김영희(30회), 김애경(18회), 박순자(28회), 이영주(28회) 동문이 차지했



다. 당일 체육대회에서는 축구, 바둑, 테니스 등을 예선과 결승전으로 진행했다.

이날 축구는 팽팽한 예선전을 거쳐 인천·부천시부 우승, 2위는 안양지부, 3위는 안산지부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고, 바둑은 운동장 한켠에 마련된 그늘집에서 하루종일 팽팽한 긴장감과 진지함 가운데 수원지부가 우승, 안양지부 2등, 부천시부 3등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테니스는 광명지부 우승, 부천시부 2등, 안산지부와 26회 동기회가 3위를 차지했다.

○ 이번에 26회 동기회가 많은 참석과 각 종목에 참가해 동기회의 활성화와 친목을 자랑했다.

그래서 이날 종합우승은 안양지부, 준우승 부천시부, 3위는 수원지부가 차지했다. 가장많은 동문이 참석한 지부는 수원지부로 금일봉과 최다참가상의 영광을 가졌다.

체육대회가 끝난 후에는 홈커밍데이 행사가 열려 다과와 함께 행운권 추첨, 장기자랑 등의 이벤트가 진행되었으며 참가한 모든 동문에게는 두 손 가득 푸짐한 선물과 선후배간의 돈독한 정을 마음속에 가득품고 내년을 기약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일상으로 돌아갔다.





2008학년도 학위수여식



2008학년도 약학대학 학위수여식이 2월 19일 오후 2시에 학생회관 3층 루이스홀에서 열렸다. 이번 졸업식에는 약학전공 64명, 제약학전공 66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유정사 회장, 김대경 학장을 비롯 명예교수, 재임 교수 및 조찬휘 서울시약사회장, 이범식 동작구 약사회장을 비롯 많은 제약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졸업생들을 격려하고 축하했다.

유정사 회장은 인사말에서 “신입동문이 된것을 환영하며 망망대해와 같은 사회에서 동문회는 소중한 울타리와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김대경 학장과 재임 교수들은 졸업생들에게 일일이 학위증을 나눠 주며 악수를 하며 아쉬움과 기쁨을 나누었다.



▣ 2008학년도 제53회 졸업생 명단 ▣

전공	성명
약학 전공	유영수, 박창용, 이태준, 이흥수, 최원주, 감기백, 김기남, 김도영, 김도희, 김동수, 김선우, 김아름, 김인선, 김현숙, 김현진, 문지애, 민예나, 박근령, 박은정, 방서연, 서소현, 성수화, 손예성, 손호빈, 송동섭, 송유희, 송혜민, 양미경, 유영, 윤찬석, 이나라, 이미래, 이승윤, 이신우, 이어진, 이지나, 이창주, 이창한, 이혜민, 임영미, 임영태, 임정연, 임지성, 임효진, 장은선, 장현순, 전지현, 정상원, 조봉재, 조혜림, 최대림, 최윤경, 최지현, 최초야, 최희정, 허재용, 홍성채, 홍은지, 강민욱, 김정현, 박효영, 서은려, 조수진, 김혜지, 【이상 : 약학전공 64명】
	정우빈, 이영로, 강원구, 김지완, 이강은, 홍성훈, 강지선, 김원진, 노유진, 강형규, 권지현, 김가람, 김경덕, 김경은, 김덕기, 김라미, 김란, 김민아, 김봉섭, 김봉수, 김봉준, 김산호, 김상현, 김영민, 김은영, 김지현, 김진우, 김태은, 김희래, 류미란, 문기영, 박상한, 박소암, 박연주, 박지영, 박현민, 배재우, 백상준, 서보영, 설재영, 손호민, 심병호, 심현숙, 안리영, 윤진경, 이가연, 이조영, 이지연, 이지현, 이현정, 장동혁, 정원희, 정유경, 정현주, 조경연, 조성하, 조인경, 차지혜, 최상민, 최세아, 최신희, 최정희, 최진하, 풍성현, 한혜영, 홍성욱 【이상 : 제약학 전공 66명】



▣ 학술상 수상자 명단 ▣

교내학술상		교 외 수 상 자			
구분	성명	기관명	성명	기관명	성명
대학수석	임지성	대한약사회	임지성	한미약품(주)	심현숙
전공수석	조혜림	서울특별시약사회	조수진	일동제약(주)	박연주
	김라미	경기도약사회	김정현	신풍제약(주)	이지나
전공차석	양미경	동작구약사회	김도영	삼진제약(주)	이지현
	박지영	본동문회	정유경	삼일제약(주)	최진하
공로상	강형규	여자동문회	김가람	건일제약(주)	송유희
	허재용	안양동문회	김도희	하나제약(주)	손예성
	설재영	안산동문회	박효영	(주)온누리약국체인	김경덕



7회 졸업 45주년 기념 행사를 마치고...



배 동 운 (7회) 동기회 총무

2003년에 40주년 행사를 끝내면서 50주년에 만나자고 약속하고 헤어졌지만 많은 친구들이 10년이란 시간이 너무 기다리기에는 길고 건강을 걱정하는 말이 있어 45주년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준비할때나 끝나고 나서도 우선은 45주년 행사를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걱정한테로 건강에 적신호가 왔거나 투병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았고 또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었거든요.

역시 「만남」이라는 것 그리고 동기생 친구들과의 만남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되었습니다. 80여명 동기생과 배우자 40명 총 120여명이 모인 행사는 반가운 마음과 더 건강하게 활기차게 살아가자고 다짐하게 된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했습니다. 식전행사로 아침 10시 30분에 창덕궁 앞에 모여 가을 빛이 깃들인 궁내를 돌아보며 역사의 흐름을 느끼면서 모처럼의 「비원」나들이에 한껏 의미를 부여했으며 「중식」을 맛있게 한 후 남산 「서울타워」에 올라 변화된 서울 전경을 보면서 새삼 느껴지는 것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로 이동하면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담소를 하면서 행사장에 도착했고 인천 행사장으로 직접 온 동기생친구들과의 반가운 만남과 변해버린 서로의 얼굴을 확인 하면서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순간순간이었습니다.

중앙대출신인 텔란트점 가수인 송중원의 감미로운 배경음악과 band로 분위기를 띄우면서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배동운 총무의 경과보고후 국민의례, 교가를 힘차게 부르면서 가



슴뭉클하게 모교에 대한 사랑을 다시한번 확인 하고 정재일 회장의 59년도에 만난 친구들의 인연과 만날 수 있다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개회사가 있었으며 김종갑, 손동헌 교수님의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듣고 이광표 교수님과 함께 케익커팅을 하고 건배를 하였습니다.

한사람 한사람 이름을 호명하면서 친구들과 배우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로워 보이는 듯한 얼굴, 노화된 느낌 그리고 학창시절의 그리웠던 추억을 떠올리는 그런 그리움의 순간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40주년에 이어 이번에도 이양현 친구가 제공한 식사와 술을 하면서 즐거운 분위기에 한껏 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화합의 시간에는 희망자에 한해서 장기자랑을 하도록 했는데요. 시작은 정조원 동기가 「친구」라는 시를, 최명자 동기가 「석양」이라는 시를 낭송하면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잘 나타내 주었고 언제「시인」이 되었었는지 놀라웠습니다.

이어서 남녀 10여명이 합창단을 즉석으로 구성하여 「사랑으로」라는 노래를 합창하면서 우리들의 실력을 나타내었고 한사람 한사람 나와서 노래 / 만담 / 숨겨둔 재능을 발표하는데 실력이 보통이 아니었다고 생각되었으며 신청자는 많았지만 시간관계로 다하지는 못하고 아쉽게 끝내면서 「행운권추첨」으로 조그만 선물들의 갖고 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특별상으로 암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홍삼정」을 증정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꼭 극복하라는「기」의 박수를 힘차게 보냈으며 마지막으로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50주년에 만날것을 약속하면서 「만남」이라는 노래를 합창하는 것으로 모든 행사를 끝냈습니다. 졸업 45주년 기념행사를 보람있게, 뜻있게 끝냈지만 친구들과 헤어진다는 아쉬움과 표현하기 어려운 아쉬움, 그리움 같은것이 함께 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은 같다고 했습니다. 다만 과정이 다르고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은 「만남」아 아닐까요?

인생은「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도 「만남」으로부터 이루어 진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던 59년에 만나 지금 50여년이 흘러 오도록 만나고 「인연」을 이어 오고 있는 우리들은 영원하고 진정한 친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 「애늬은이」들 한테는 건강 / 배우자 / 돈 / 친구 / 께리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진정한 「친구」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말 하나 소개합니다.



넘칠때는 모릅니다.

건강할때는 지칫 잊고 삽니다.

모지랄 때, 이쁠때, 비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한걸음도 뻐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알게 됩니다.

함께살아야 인다는 말은 서로 돕고 살리는 뜻입니다.

함께 어울리고, 채워주고, 나누고, 위로하면서 이름답게 살자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 헬레나 느르베리 "오래된 미래"중에서

7회 동기생 친구 여러분! 그리고 가족여러분!

다시만날때까지 건강합니다.

그리고 2013년 졸업 50주년에 꼭 만납시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주신 친구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언제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0월 11일 7회 졸업 45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50주년에 건강한 모습으로 꼭 다시만납시다.



졸업 40주년 행사를 마치며...



이 정 구 (12회)동기회 총무

금년은 우리가 대학을 졸업한 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졸업 20주년, 30주년 기념행사도 뜻 깊게 가졌지만 졸업 40주년이 되는 올해를 그냥 보낼 수는 없지요. 문제는 경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큰 문제였습니다.

우선 5월 17일 각 지역 대표와 소모임의 회장들을 소집하여 의논하여 보았지요.

모두 한결 같이 십시일반 찬조금을 내고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동기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7월 말 우선 총회 장소로 양평 모 장소를 다녀 오고, 며칠 후에 다시 몇몇이 재답사하여 1차 회의 장소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에 소재

한 VIP청소년수련관이 더 적합하다고 하여(김구 대약화장의 천거)방문해 본 결과, 확실히 아주 좋았습니다.

10월 들어서는 동기들에게 기념행사 일정에 관한 우편물을 발송해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부탁하였으며 초청 교수님들 섭외도 시작하였고 찬조할 만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부탁하였습니다.

기념행사 통지서를 우편으로 다시 송부하고 전화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약국을 주로 하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에 약국을 비고 나오기도 그리 쉽지 않은 일이라 참석하여 달라고 여러번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경비만 걷히면 무얼하겠어요?

우리들의 잔치에 우리들이 빠지면 그것도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버스 2대만 채울 수 있다면 더 이상 욕심을 안 부릴 텐데...

생업을 쉬어 가며 참석할 동기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참석하도록 마음을 돌리려면 많은 정성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상 경비는 거의 다 받고 출발일만 기다립니다. 예정된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영등포역에서 출발하는 버스와 압구정역에서 출발하는 버스 2대에 분승하여 목적지인 양동 VIP 청소년 수련원으로...서울 경기 주변에 있던 친구들도 오랜만에 만난 경우도 있지만 대구, 강릉, 춘천, 부산 및 주변 지역에서 모여 약 80여 명 참석하였고 내빈으로 손동헌, 허인회, 임철부교수님, 손의동 현 약대학장님, 유정사 현 중대약대 동창회장님, 현 동문회 정찬현총무님이 참석하여 오늘의 모임을 더욱 빛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학교 발전 기금 500만원과 동창회 발전기금 500만원을 동기들의 이름으로 쾌척하였습니다.

간단한 식을 끝낸 다음 야외로 나와 모닥불을 피워 놓고 바베큐 파티 시작.

오랫만에 만난 친구들과 담소도 나누고 스승님과 학창 시절에 있었던 재미있었던 추억들을 모닥불에 태우며 밤을 술잔에 기우립니다.

가끔 내리는 소나기는 양념으로 술 안주로 새기며 모닥불 앞에 앉아 친구들과 노래와 춤으로 청춘을 되살려 보기도 하고요. 음악이 우리를 맞추어 반주하고 간간히 행운권 추첨으로 푸짐한 선물도 받고...

취기가 오를 즈음 친구들과 삼삼오오 어깨 동무하고 숙소로 하나 둘씩 빠져 나가네요. 바쁘다고 자가용 가져 온 친구들은 밤길을 이용해 상경한답니다.

방마다 노크를 하여 보지는 않았지만 바둑을 두는 친구들에, 그림공부하는 친구들에, 아직도 모자란지 술잔을 더 기울이는 친구들에, 밤이 가는지 통 모르나 봅니다.

이튿날 구내식당에서 아침을 끝내고 계획대로 여주에 있는 유적지를 둘러보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고달사지로...

국보 4호인 고달사지 부도를 비롯해 고달사원종대사해진탑(보물 7호), 고달사 원종대사해진탑비 귀부와 이수(보물 6호), 고달사지 석불좌(보물 8호)가 절터에 남아 있는 것을 세세히 관찰하며 문화재에 해박한 최창묵 동기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동기 중에 문화재에 대해 이렇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으로 신륵사 탐방. 신륵사에는 조사당, 다층전탑, 다층석탑, 보제존자 석종 등 보물이 7점이나 있었습니다. 높은 가을 하늘, 유난히 짙은 태양 아래 피어 있는 코스모스 길도 나이 깊은 노인에게는 쉽게 피로를 안겨 줄 뿐입니다.

이상 유적지 탐방을 끝내고 돌아 오는 길에 옛날 썸밥집이라는 곳에 들어가 특색있는 메뉴로 점심 식사를 끝낸 후 상경하였습니다.

오랜동안 신경 써 온 행사를 무난히 마칠 수 있게 애써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끝을 맺을까 합니다.



74학번 졸업 30주년 후기



최 광 훈 (22회) 전 동기회장

눌러있던 몸과 마음에 자유를 얻은 수험생들이 거리에 나올 즈음, 우리도 한견에 설레는 맘을 동반시켜 어둠이 내려 앉는 서울 시내로 향했다.

성장한 자녀의 활기찬 모습을 보며 나에게도 있었을 그 젊음과 청춘이 때때로 그림기도 했고, 그에 반해 희끗 희끗한 머리카락 사이로 주름살이 더해가는 것을 느낄 땐 우울증 염려도 했는데, 도시의 어둠이 찬란한 네온사인으로 바뀐 시간, 대학생활을 함께 누렸던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으니 어찌면 우리의 청춘이 되돌아 올 것만 같은 마음에 프라자 호텔 엘리베이터 버튼을 더 힘껏 눌렀다.

중앙대 약대 22회 졸업생이라는 이름을 안은 채 22층 루비홀로 들어서니 먼저 온 화환들이 반겨주고, 홀 안엔 알듯 모를 듯 한 중년들이 버티고 있기에 순간 은사님이 시겠거니...

그러나 그것은 착각, 어느새 우리가 그 시점에서 있었던 걸 깜빡했지.

졸업 후 30여 년 세상에 적응하며 중년으로 변해버린 우리들! 그래도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 참 좋다.

손을 잡고 “자네 누구지~~” 확인 하면서 어디에서 무슨 역할을 담당하고 사는지 자녀들은 몇이나 두고 어떻게 키웠는가 묻기도 하고...그렇게 지난 세월에 묻힌 반가움을 주고 받았다.

그 옛날 파이프 홀에서 별집 무늬 속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던 은사님들께 인사를 드릴 땐, 세월이 빗겨간 듯 아직도 정정하신 모습에 감사의 마음이 들었다.

오히려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시절 교수님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니 ‘어찌할꼬~’

그 땐 엄청 어렵게 느껴졌는데

아무튼 유례없이 많은 은사님들(한덕룡, 김종갑, 김일혁, 손동헌, 이광표, 김기호, 허인회, 임철부, 신화우...)께서 참석해 주셔서 궁금하고 뵙고 싶던 차에 무척이나 반가웠고 감사했다.

또한 연말 행사도 많고 바쁘실텐데 내빈들(김구 대약회장, 유정사 동문회장, 정찬현 사무총장, 조찬휘 서울시 약사회장과 75학번 정덕기, 광창림...)께서도 우리를 축하해 주시려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했다.

드디어 경기도 여약사회장인 강희운 동기가 1부 사회를 맡아 기념행사가 활기차게 시작!

국민의례와 내빈소개 그리고 제가 동기회장으로 인사말을 하였고 이어 유정사 약대동문회장의 축사와 김구 대약회장님, 조찬휘 서울시 약사회장님의 격려사, 손의동 약대 학장의 인사가 있었는데 마침 우리 동기가 학장을 맡고 있을 때라서 또 다른 의미가 부여 되었다.

한덕룡 박사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은사님들의 덕담도 들었고,

중앙약대 74학번의 명예를 높인(한만영, 김종빈 제약업계 대표이사들과 운영식 식약청 안전국장, 손의동 약대 학장, 강희운 여약사회장)동기들에게 공로패와 이준상 전 동기회장에게 감사패도 수여했다.

그 외 몸담고 있는 각 지역에서 현재 분회장으로 수고하거나 이미 분회장을 역임한 동기들이 많지만 마음으로 우리 22회를 빛내준 수고에 고마움을 전했다.

그리고 약대 동문회에 우리 모두가 모은 500만원의 기금 전달식도 하였다.

이렇게 공식적인 1부 행사를 마치니 앞 대형 화면에 7080 음악과 함께 영상이 뜬다. 손의동 동기가 우리들 카페에 올려진 사진과 학창 시절 사진들을 모아 만들었다.

돌아가는 영상 속에 내가 있고 친구가 있으니 “그래 그땐 우리가 저랬었구나” 지나간 우리들의 청춘이 빛바랜 사진 속에서나마 추억으로 돌아와 줬다.

2부는 이준상 동기의 사회로 한잔 술에 힘입어 화기에 애하게 시작되었다.

서울 야경이 훤히 보이던 프자라 호텔 22층에서 이루어진 22회 행사 이것 또한 우리의 행사를 축하하기 위함이 아닐까?

은사님들과 회장단들이 축하 케이크를 자를 때 모두가 자축하는 마음이 되어 힘찬 박수를 보냈다.

시간이 많이 흘러 모두의 뺏속에서 효과음이 들릴 즈음 들어온 서양 요리는 옛 친구들 곁에서 더욱 맛있는 간이 배어 입과 식도를 거쳐 고픈 배를 채워 주었다. 그러는 중간 중간 술잔이 돌고 사람도 돌고 우리들의 이야기도 옛 날로 돌아가니 모두가 돌고 돌아왔다.

어느 동기는 맨 처음 고백을 반백이 다 된 이제사 하고 있으니 이미 때는 늦어 그런들 무삼하리오.

아~ 애석하도다! 그 많은 동기들 중에 어찌 한 사람의 가까운 짝도 만들지 못했을까 한탄도 해 보고...

캠퍼스 커플이 유난히 많은 우리 동기들, 다들 잘 살고 있어서 부러워하며 해보는 소리가 아닌가!!

각자 속해 있던 실험반 이야기도 오고 가고, 씨클에서 일어났던 일들도 꺼내어 웃고... 데모를 한다며 돌멩이를 모아 주었던 기억과 최루탄을 맞아 눈물을 줄줄 흘리며 다녔던 캠퍼스 이야기.

하얀 까운을 입고 실험실에서 보냈던 그때, 내 실험 파트너는 누구였더라...

그러다가 아 벌써 먼저 하늘로 간 친구들도 있네. 쓸쓸한 맘 매만지며 함께 아파도 하다가...

학점이 짜다고 어려워했던 기억은 어디로 보냈는지 마냥 푸근한 음성으로 불러주신 한 박사님의 노래 소리에 박수를 보내고,

노래 대신 오바마 미 대통령 곁에 보이던 한인 교포 이야기를 들려주신 손박사님의 말씀도 듣고...

은사님들의 노래에 이어 우리 동기들이 학창시절을 떠

올리며 하나 둘 나와서 흥겨운 여흥을 보낼 수 있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 봐도 보이는 건 모두 돌아왔네~~~~♪” 그땐 이 노래가 마음에 꼭 들어왔었는데....

참석해 주신 은사님들과 내빈들을 배웅하고 돌아서며 부디 건강하셔서 다시 뵙자고 다음을 예약했다.

이번 행사를 끝으로 저는 10년 동안의 임기를 마무리 하고, 후임 동기회장으로 강남구 약사회장을 지냈던 유대식 동기를 추대하여 만장일치로 선출 하였으며, 모든 동기들이 서로 도우며 잘 하자는 의미의 힘찬 박수를 보냈다.

아쉬움을 남기고 돌아가는 손에는 경기도약회장인 박기배 선배가 준비해 주신 수건과 일양약품에서 협찬해준 태반크림, 그리고 우리 동기회에서 마련한 자개로 된 명함집을 받았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우리 임원진들이 오래전부터 많이 만나 회의를 했다. 큰 테두리를 정하고 날짜와 시간, 장소는 물론 회비 문제며 손님 초빙문제, 상품과 공로패를 상의 하고, 또 되도록 많이 참석하여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여러가지 방법을 논의 하였다.

그 결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 마침내 성황리에 자리를 마련하고 마칠 수 있었다.

제일 고마운 것은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고 참석해 준 우리 동기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대들이 있기에 우리 모임이 지속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부디 건강한 몸으로 사는 동안 끈끈한 정을 나누며, 입학과 졸업 40주년, 50주년 우리의 만남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람한다.





27회동기회 소개 및 동정



현 기 원 (27회) 동기회장

79학번 동기회 일명 칠구회라 명칭한 동기회는 매년 3-4 차례 모임을 갖고 친교의 만남을 계속하고 있다. 졸업20주년을 갖은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그 당시 25주년이 되는 해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가자고 굳게 약속들을 했건만 아쉽게도 국내의 여건상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아마도 이 계획은 차기회장이 30주년 행사 시점을 계기로 이루어지길 바랄 뿐이다. 현재 주소가 파악된 45명 정도가 연락이 가능한 인원인데 120명이 졸업한 가운데 이 정도이니 아직도 미흡한 것이 많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사회전반에 고르게 퍼져 자기 몫을 다하고 있는 동기들을 볼 때마다 여간 뿌듯하지 않다. 안산(한봉길), 의왕(박영달), 화성(김정호), 마산시(이원일) 분회장을 맡고 있는 동기를 필두로 동문회 사무부총장(최면용), 복지부 사무관으로 있는 친구 또 해외 지사장으로 있는 친구가 있으니 이만하면 어느 기수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듯 싶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함께 하는 친구들이 뭉치지도 어언 내년이면 입학 30주년이 되니 강산이 3번이나 바뀐 셈인 것이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불의의 사고나 병사로 고인이 된 친구가 있으니 무어라 이 친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해줄지 안타까운 마음만 사무칠 뿐이다. 며칠후면 새로운 회장과 총무가 탄생된다. 초대 회장을 필두로 5-6명의 회장과 총무가 바뀌었다. 다들 아쉬움 속에 물러나지만 항상 동기들 모임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

고 또 바랄 것이다.

5년간 회장 직책을 다해온 나로서도 왜 아쉬운 소회가 없겠는가! 아쉬움 보다 친구들에게 미안한 감이 더 든다. 좀 더 충실하게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소식을 전해줄 걸 하는 소회가 더 짙게 배일뿐이다. 乙丑年 새해에는 모든 친구들이 경제적으로도 축복 받고 건강도 강건해지길 빌어마지 않는다. 소피 해를 맞아 소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동문 모두에게 적용되길 바라고 소망해 본다. 어제 강화도에 다녀왔다. 전등사 대웅전 경내를 돌아보며 떨어지는 낙엽을 보니 세월의流水감이 또 한번 진하게 느껴졌다. 이렇듯 자연은 시간과 세월을 머금고 그 색을 시시각각 달리하고 있다. 아마 우리네 인생도 나이를 먹으며 피부에 도색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만 그 도색이 추하지 말고 아름다워 지길 바라뿐이다. 친구들의 만남은 늘 아름답다. 지위의 높낮음도 없고富力 많고 적음도 친구들에겐 단지 허울뿐이다. 같은 학교 같은 과 4년을 함께 한 친구의 연이 이 모든 것을 녹였기에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친구가 되리라.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동기여! 친구여! 새해에는 얼굴을 부딪쳐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앞으로 우리들의 삶에 화기에애한 웃음꽃이 피어나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 칠구회 친구들의 영원한 우정을 위하여 건배.....

사랑하는 동기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84학번 졸업 20년 기념
cafe.daum.net/caupha84

기와의봉의 교문, 넓은 황금빛 루이스가든과 흰색의 파이퍼홀, 청룡연못과 도서관 시계탑, 한강을 넘어 멀리 남산타워를 바라보던 할머니동산, 민주화의 열망이 일던 그 시절 최루가스라 씨름 하면서 타 학과 보다 많은 학점과 많은 실험으로 실험실에서 영신관 강의실에서 열정을 불살랐고 할머니 동산 앞, 혹은 루이스가든에서 젊음과 시국을 논했던 그 시간의 열정과 그리움으로 모인 우리 동기들, 오늘 은사님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졸업 20주년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경 우 (32회) 동기회장

강산이 두 번 변한 즈음에 사회초짜였던 우리 병아리 약사들은 그간 개국약사로서 각 지역 약사회의 중견약사로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고 있으며 자랑스러운 몇몇의 동기생들은 약사회의 회무를 이끌고 있으며 식품의약청, 지역보건소 등에서 행정의 기둥으로써 근무하고 있고, 교육현장에서 후학들의 교육을 맡고 있는 동기들, 병원에서 책임약사로, 제약회사 및 그 업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회사정책의 책임자로, 연구개발의 연구소 소장으로, 외국제약사의 간부로 세계를 상대로 우리 중앙대 약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약사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 미국약사 면허를 취득한 동기, 만학의 공부로 캐나다 약사 면허를 취득한 동기도 있는가 하면 우리의 길과는 전혀 다른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동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의약분업과 성분명 처방문제, 일반약의 슈퍼 판

매나 약가문제, 그리고 세계적인 불황의 그늘속에 있습니다.

모교는 최근 재단이 바뀌고 약대 6년제 학제 변경으로 더 많은 투자가 이끌어져 새로이 약대 건물을 신축하고 있어 새로이 우수한 대한민국 약사, 아니 세계속에서 우뚝 설 약사의 요람으로 변화 하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 타 학번 선후배 보다 더 노력하는 학번이었던 우리동기들, 더 배우고 더 익혀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헤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국적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사회적 문제가 되었듯 학적은 영원히 바꿀 수 없습니다. 세월이 가든 시절이 가든 우리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한 같은 학적을 갖는 동기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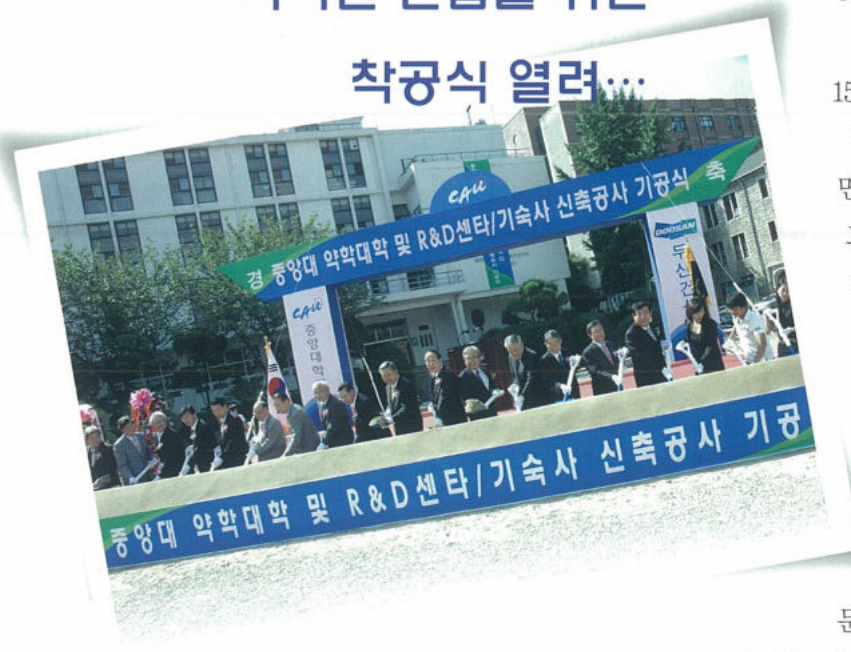
우리가 배우고 졸업한 모교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약학대학 84학번 사랑스러운 동기들, 그리고 은사님들의 건강과 행운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오늘 만남을 자축합니다. 중대 약대 84학번 화이팅!



“세계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우리 모두의 숙원 사업인
약학관 건립을 위한

착공식 열려...



2008년 9월 18일 오전 11시에 현 약학대학 앞 루이스가
든에서 중앙대 약학대학 및 R&D센터 및 기숙사 신축 공
사 기공식을 갖고 새 약학대학 모습을 공개했
다.

이날 박용성 이사장과 박범훈 총장, 내외빈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이 진행되었다.
박용성 이사장은 축사에서 “본공사가 완공되
면 교육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
고, 손의동 약대 학장은 “새 약학관이 약대 6년
제가 시행되는 2011년 1월에 완공될 예정이어
서 6년제가 시행되는 첫해에 3학년 입학생받
게 되어 있어 약학교육에 큰 밑거름이 될 것
으로 기대한다”며 “중앙대 약대의 옛 명성
을 회복할 수 있는 교육 및 연구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의동 학장은 “

아울러 중앙대 약대는 명실상부한 동
문회의 자랑거리로, 또 동문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 중양대 약학대학 및 R&D센터/기숙사 신축공사 기공식

유정사 동문회장은 “약학관 건립은 우리대학이 세계속의 일류대학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초석이 되리라 생각하며, 지금까지 힘을 모아주신 동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대학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동문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말했다.

신축 약학관은 전체 11,387.26평으로 지하 4층 지상 11

층으로 구성된다. 지하 2-4층은 지하주차장 및 부대시설, 지하 1층은 선큰가든 및 학생교직원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되며, 1층부터 6층까지는 약대교육연구공간으로 되고, 신약과 연구개발투지를 위해 7-11층은 R&D 센터로 활용케 되어있어 순수 약대공간으로는 5300평이상이 확보되어 있어 국내최대의 약대전물로 될 것이다.

중양대 약학대학 및 R & D 센터 / 기숙사 신축공사

| 2009 신입교수 프로필

2009년도 신입교수



- **성명** : 오경택
- **학력** : 중양대 약학사, 중양대 약학석사, 네브라스카 의과대학(UNMC) 약학박사
- **임용년월** : 2008년 3월
- **담당과목** (학부) : 약품물리, 약물동력학, 무기제약, (대학원) 생물물리



- **성명** : 민경훈
- **학력** : 학사 : 중양대 약학대학 약학과
석사 : 서울대 약학대학 약품화학전공 (지도교수: 서영거)
박사 : 서울대 약학대학 약품화학전공 (지도교수: 서영거)
- **임용년월** : 2008년 3월 1일
- **담당과목** (학부) : 유기화학, 유기약품론 (대학원) : 유기화학특론



- **성명** : 민혜영
- **학력** : 서울대학교 약학과(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약학과(석사), Stanford Univ. Dept. of Statistics(석사), UCLA Dept. of cellular and molecular pathology(99-04, 박사)
- **임용년월** : 2009년 3월
- **담당과목** (학부) : 미생물학(생물통계학, 생물정보학 가능)



- **성명** : 김현정
- **학력** : 서울대 제약학과(학사), 서울대학교 약학과(석사),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대학 Molecular and Cellular Pharmacology(박사)
- **임용년월** : 2009년 3월
- **담당과목** (학부) : 약물 독성학, (대학원) : 세포 약물학

Profile



라일락 추억



정영기 (10회) 동문

꽃도핀 수포양년 90051

초봄 바람결에 라일락 향이 은은해지면, 때를 같이하여 연두빛 작은 잎새들이 뽀족한 참새 주둥이처럼 돌아난다. 이 때쯤이 1학기 시작일 테고, 캠퍼스 곳곳에는 새내기들의 참새같은 지저귀임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 여리고 쫄긋한 잎새들이 어느새 크고 둥근 하트 모양의 진초록 이파리로 자라서 초여름 강렬한 햇볕에 반짝일 쫄이면, 새내기의 하트에선 성숙이 급진되는 발열반응이 일어날 것이고, 대학사회 최초의 터널인 첫 기말고사에 이어 뒤따라 맹렬한 경적(警笛)이 울릴지도 모른다.

경적이러니! 화사하고 현란한 성숙의 계절을 통과하는 충분한 젊음의 함성 같은 것이란 말인가. 아니면 밤새워 고쳐 쓴 연서를 싣고 먼 연인의 창(窓)을 향해 내달리는 싱그러운 청춘열차가 뿜어내는 낭만의 기적이더란 말인가? 아니었다. 무한 궤도나 다름없는 무절제의 청춘을 구가하며, 얼굴에 치른 기말고사의 성적표가 올려주는 준엄한 경고음이었다.

방학도 유보 당한 채 가까스로 기회를 얻은 재시험도 실패하자, 과락의 고미(苦味)가 내재하는 불만의 방학이 되어 불안정한 파행성의 기미도 조금씩 피어가는 신경증 같은 것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군 복무나 다른 사정으로, 때늦게 후배 교실에 앉아 같은 수업을 받는 선배들을 볼 때, 에누리 없이 낙제를 시켜대는 짜디짠 학점 공포증이 유발하는 불안과 초조가 융합된 학점 노이로제 증상이 역력하였다.

더러는 재시험의 기회라도 주었으니 다행이라고? 하지만, 재시, 삼시를 치르면서 시험 회수에 비례하여 노이로제는 더욱 깊어만 가서, 이수표(履修表)를 받아 들기 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복학생이면 대개가 앓기 마련이던 이 중환

(重患)의 추억은 지금도 나의 기억을 떠나지 않고, 푸른 봄 하늘은 은백(銀白)의 아지랑이를 배경으로 가냘픈 라일락 꽃 가지가 추억 속에 하늘거린다.

내가 군 제대 후 복학할 때는 월남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때였다. 동기들은 거의 다 졸업한 후였고, 선후배를 합쳐 복학생이 교실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던 시절이었다. 제대한 복학생에다 그 만큼 유급 또는 과락생도 많았던 것이다. 그 때 복학그룹에는 우리가 라일락(Lilac)의 첫 글자를 따서 L이라고 불러주던 여학생이 있었다. 조용하고 수줍음도 많아서 섬약하고 해맑은 인상이 라일락을 연상케 했다. 한 해 후배이자 나와는 동향인 조(趙) 군을 열애하여, 나보다 늦게 입대한 조 군이 월남에서 보내온 편지에도 매 번 그녀의 안부를 묻곤 했고, L도 내게만은 별 숨김없이 조 군 이야기를 자주 했었다. 고교 때부터 시를 잘 쓰던 조 군은 입대 전에도 자작시를 낭독하며 허공에다 걱정의 몸부림을 날리며 온 밤을 지새곤 했는데, L을 향한 열애의 표현이었고, 나는 둘 사이의 사랑의 메신저 노릇을 톡톡히 했었다.

제때 학점을 못 따면, 재시에서 만점을 받아도 턱걸이 학점을 주기 마련이었는데, 복학생을 고려해선지 정량분석화학(定量分析化學)만은 그렇지 않았다. 실패율이 많다 보니, 언제든 응시하여 받은 만큼의 점수대로 학점을 주었다. 교수님도 답답했던지, 6문제를 출제하여 1문제에 20점씩을 주어 5문제만 맞추면 100점으로 인정해 주었다. 재시, 삼시의 경우지만, 정답을 쓰고도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초조한 마음에 기다리지 못해 교수실로 잠입하여 묶어놓은 이수표 뭉치를 살짝 비집어 미리 확인을 하곤 했고, 거듭된 실패에 절망한

나머지 중도에서 수제 학업을 포기하는 수도 많았다. 생명 과학의 본연이자 그 길을 택한 과학도의 운명이라는 것이 지독한 학점의 이유였고, 그런 이유를 말하는 교수님의 얼굴에선 죄송하지만 지독한 외에는 아무 것도 읽을 수가 없었다.

하늘로 오를듯한 높고 아득한 도서관 계단 길을 따라 초록 빛 라일락 이파리가 왕성한 그늘을 드리우고 있던 어느 날, 기말고사를 마치고 여름방학 설제로 마음이 부푼 학생들이 삼삼오오 오르내리는 계단에 L이 앉아 울고 있었다. 수줍음도 많았던 그가 주위의 결눈질도 아랑곳 않은 채, 절망감에 싸인 표정으로 눈시울이 붉게 젖어 있었다. 초점 잃은 멍한 표정으로 한 참 만에 가까스로 입을 연 허탈한 그의 대답은 정량(定量) 점수가 20점밖에 안 나왔다는 것이다. 무슨 사정 이었던지 3년이나 졸업이 늦어진 그로서는, 이제 정량 하나 때문에 졸업이 유보될 운명이니 기가 찰 일이었다. 얼마 안 있으면 귀국할 조 군의 모습도 떠올랐을 것이다. 한 참을 망연해 하던 그는, 흐트러진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라서는 서둘러 가방을 챙기고, 더는 말을 붙일 새도 없이 라일락 숲을 지나 사라지더니, 잠시 후 종종 걸음으로 저 아래 운동장을 질러 교문 밖으로 나가고 있는 뒷모습이 보였다.

무척 의아스런 일이었다. 시험 치기 수일 전부터 가까이 지내던 복학 멤버 몇이 군복무에 오랫동안 녹이 슬어 무더진 머리로 안간힘을 다해가며, 여러 차례 모의고사를 치면서, 홍일 점이던 그는 다른 멤버들의 오류를 지적하며 가르치기도 했고, 그 덕에 모두 기필 패스를 자신했었고, 나중 결과도 올 패스였는데, L이 빠졌다니! 복학생에겐 비교적 관용했던 조교를 붙들고 확인해 보니, 이게 웬 말인가, L의 점수는 120점이었다. 6문제를 다 해 낸 것이었다. 5문제와 6문제를 동일시할 수 없어 120점을 기록해 두었는데, 반 노이로제 상태이던 이 수줍음 많은 여학생은 이수표 문치를 살짝, 그것도 재빨리 본다는 것이 기록의 뒷부분만을 보고는 절망한 것이었다. 사실을 확인한 우리들은 서둘러 그를 찾았으나, 그 놈의 학점 노이로제가 이 섬약한 여학생을 어디로 내몰았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날 내내 밤늦도록 멤버들이 조를 짜서 학교 주변 약국들을 지켰다. L이 혹시 스스로에게 극약처방이라도 할까 봐서였다.

나중에서 연락을 끊고 고향에 가 있는 그와 연락이 닿아 탈(脫)노이로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우리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이 무슨 비보인가! 월남에서 조 군의 전사통보가 날아들었다. 며칠을 망설이던 끝에 전화를 들었으나, 목이 메여 말을 잇지 못하는 내 목소리에 L의 다그침은

여전히 노이로제를 앓고 있었다. "선배, 점수가 잘못된 거지? 그렇지? 그렇지?" 숨가쁜 그녀의 질문에 나는 아무 말을 못하고 전화기를 놓고 말았다.

졸업 후 얼마 만엔가 찾아 본 약사회 명부에는 L의 이름은 분명히 있었으나 주소는 없었고, 은연중 그녀를 짝사랑했던 당시 복학그룹 한 선배에게 물어도 아무 것도 아는 바가 없었다. 포연 속에 사라진 연인을 생각하며, 상실의 고통을 이겨 내기에는 그녀는 너무 유약했는지, 그래서 어디론가 망각의 세계로 은둔해버렸는지 모를 일이었다.

라일락은 종류가 스무 종도 넘는다고 한다. 그 중 우리나라 토종은 물론 귀화 자생하는 것도 많아, 수수꽃다리, 개회향, 버들개회향, 꽃개회향, 섬개회향, 정향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 원예자료에는 꽃과 모양이 너무 비슷해서 구별이 쉽지 않다고 되어 있다. 이름만으로 볼 때, 정향(丁香)은 약용식물학에서 유제놀(Eugenol)의 자원식물인 유칼리(Eucalyptus)와 같지만, 나머지는 일반 화원에서도 듣기 힘든 이름들인데, 지금 미국 중서부 제일의 정원수로 사랑 받고 있는 '미스킴라일락(Miss Kim Lilac)'은 순수한 우리나라 종인 '수수꽃다리'가 건너간 것이라 한다.

해방 후 미군정 시절, 한 미군 병사가 북한산에서 야생의 종자를 채취해 갔고, 라일락이란 이름 앞에 한국 미(美)의 상징으로 미스킴을 붙였다는 미국 식물학지(誌)의 해설도 있다. 이젠 미스킴라일락을 우리가 역수입도 한다 하여, 우리 것을 지키지 못한 것을 두고 더러는 애석해 한다. 지금이라 사람들이 말들을 쉽게 하겠지만, 해방 후 새로운 질서 확립에 마찰과 균열도 많았던 당시 혼란했던 우리 사회는 그 미군병사의 심미(審美)의 열정을 말할 여유도 없었을 것이다. 이젠 나무랄 일이 아니라, 먼 이국 땅에서 사랑 받고 있는 우리 꽃의 아름다움을 축복할 일이다.

약사회 명부에 이름만 얹혀놓고 주소를 밝히지 않은 L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조군의 전사 소식은 너무도 큰 충격이었으리라. 120점이라는 아주 드문 특(特)A의 완벽한 시험을 치고도 불안해 하던 섬약한 L의 모습이, 젊음을 구가할 틈도 없이 초 학년부터 잿빛으로 물들어가던 약대생의 제한된 낭만에 겹쳐지며, 그의 후일담이 궁금해진다. 70년대 약사 이민이 많았던 시절 미국으로 가지는 않았을까? 먼 이국의 하늘 아래서 수줍은 듯 섬려(纖麗)한 자태로 잔잔한 향기를 발하고 있을 '수수꽃다리'의 모습이 라일락처럼 가늘게 흔들리던 L의 모습으로 떠오른다.

章山 허인회 교수의 中英對照

陶淵명의 詩選集에서

歸園田居(귀원전거) : 전원에서 돌아와서

野外罕人事(야외한인사) 시골이라 인간지사가 드물고
 窮巷寡輪鞅(궁항과륜양) 빈궁한 거리라 세도가 발길 없네
 百日掩荆扉(백일엄형비) 대낮에도 사립문 걸어 닫고
 虛室絕塵想(허실절진상) 고요한 방에는 번잡한 생각이 끊어지네
 時復墟曲中(시부허곡중) 때때로 촌락에서
 披草共來往(피초공래왕) 초의를 입고 함께 왕래하지
 相見無雜言(상견무잡언) 서로 만나도 잡소리 없고
 但道桑麻長(단도상마장) 단지 농사 일 어떤지 물을 뿐이네
 桑麻日已長(상마일이장) 뽕나무와 삼은 날마다 자라고
 我土日已廣(아토일이광) 내 농토도 날로 넓어지네
 尚恐霜霰至(상공상산지) 단지 늘 두려운 것은 서리와 싸라기눈 내려
 零落同草莽(영락동초망) 잡초처럼 시들게 함이지



허인회 (4회) 명예교수

HOME AGAIN AMONG GARDENS AND FIELDS - II -

So little out here ever involves people.
 Visitors to our meager lane rare, my
 bramble gate closed all day, this empty
 home cuts dust-filled thoughts short.

And day after day, coming and going
 on overgrown paths, I meet neighbors
 without confusion: we only talk about
 how the crops are doing, nothing m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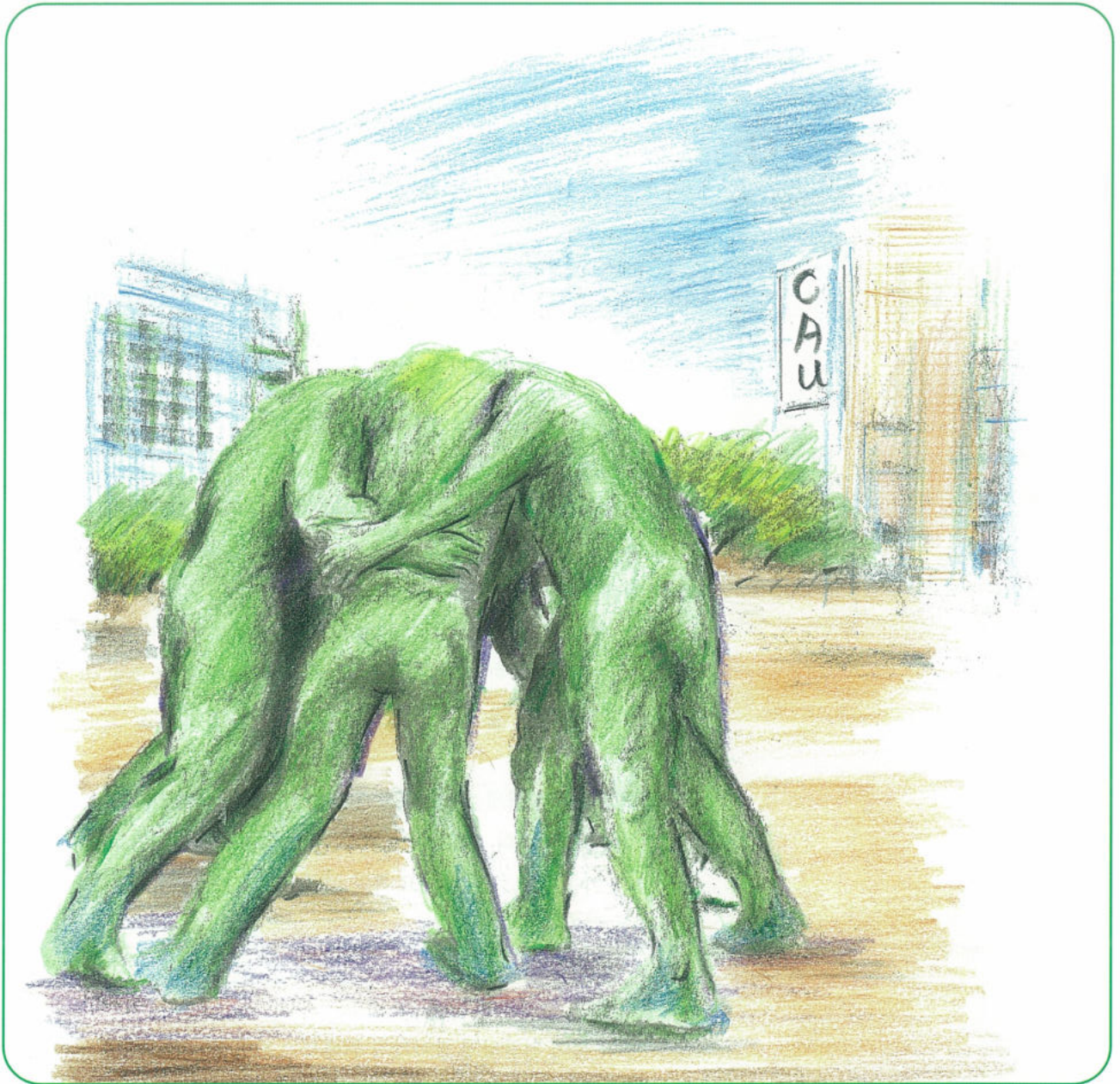
Mine grow taller each day, and my fields
 grow larger, but I can't stop worrying:
 come frost or sleet, and it all falls
 into tatters, like so much tangled brush.

한자의 뜻

野外: 시골, 罕人事: 人間之事가 드물다. 罕은 드물다. 窮巷: 궁핍한 골목, 또는 마을. 寡輪鞅: 寡는 적다. 輪鞅: 고관이나 귀한 사람이 찾아오는 車輪. 荆扉: 사립문. 虛室: [歸園田居一首] 참고. 隱者が 혼자 처한 고요한 방. 絕: 斷絶. 塵想: 塵世의 생각. 墟曲: 墟里, 즉 村落. 曲은 작은 공간을 가리킴. 草: 풀로 만든 蓑衣(사위), 도롱이 옷. 披는 입다. 披草: 또 달리 해석으로 '풀을 헤치다'가 있다. 雜言: 잡스런 말. 用作以外的의 말. 但道: 단지 말하다. 桑麻: 뽕나무와 삼. 농사일을 말함. 日已長: 날로 이미 자라다. 霜霰: 서리와 싸라기 눈. 至: 이르다 내리다. 一作에는 自로 되어 있다. 零落: 시들어 떨어지다. 두 자는 같은 뜻의 連語이다. 作物을 말라붙게 하다. 草莽: 풀숲. 莽도 풀이란 뜻.

해설

이 시에서 농촌의 소박한 소망과 전원생활 분위기를 그리고 있다.



행복의 의미



김기명 (18회) 본지 편집위원

우리 몸은 따뜻해야 오래 산다

어서오세요, 어머니?

오늘따라 혈색이 훨씬 좋아 보이네요. 그 동안 잘 지내셨죠.

응, 의사 선생님이 혈압, 혈당 조절이 잘되고 좋네---

그래요, 잘됐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네요

이 약을 드실 때 꼭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한 컵씩 하고 드세요

응, 현대 다른 약국에서는 따뜻한 물로 약 먹으라는 소리를 안 하던데

오약사님은 왜 늘 따뜻한 물로 약을 먹으라는 거야

약국에서 심심찮게 손님들하고 오가는 대화의 일부분이다.

약국경영활성화 강의를 하면서 자주 느끼는 생각이지만, 우리가 평소에 다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복약 상담 시 지나치는 것 중에 하나를 예로 든 것이다.

우리 몸은 냉하면 병이 온다.

우리 몸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따뜻해야 한다.

즉, 체온이 36.5 ~ 36.8도 범위에 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체온이라 말을 한다. 흔히 우리들은 우리 몸의 체온을 측정하면 어느 부위나 체온이 동일한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보통 손이나, 발, 배 등의 체온을 측정해 보면 훨씬 체온이 낮은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자주 피로를 호소한다든지, 자주 답이 결리고, 무좀이 잘 낫지 않고, 두통으로 힘들어 하거나, 자꾸 살이 찌고, 생리통을 호소하고, 변비로 고생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체온은 인체에서 신진대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몸에서 모든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려면, 효소가 관여를 한다. 효소는 우리 체온이 36.5~36.8도 일 때 완전연소가 이루어지면서, 에너지도 잘 만들고, 노폐물도 아주 적게 만들어진다. 체온이 1도 떨어질 때



오 흥 설 (27회) 이사

현재 경기도약사회 약학이사
안산시약사회 부회장
오박사약국 경영
안산대학교 왜래교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박사학위 취득

효소반응이 현저히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 30%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체온이 낮았던 사람이 체온이 정상으로 좋아지면, 인체에서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복부에 비만이 있던 사람이 살이 빠지기 시작하고, 부종이 없어지고, 만성 변비가 개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현대인의 마음에 감기라고 하는 우울증이 개선되며, 피로가 잘 풀린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체온을 떨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약국을 잘 경영하고 활성화를 하려면, 한마디로 말해서 복약상담을 잘 하면 된다고

말을 한다. 약국에 오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을 잘 관찰해보면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바로 잡으면 만성 질환들이 개선되기 시작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체온이 떨어지는 원인들을 살펴보면

1. 과식
2. 스트레스
3. 냉증
4. 운동부족
5. 수분과다 섭취와 배출불량 등을 들 수 있는데, 과식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소화능력 이상의 과식은 대사 효소를 과도하게 소비하게 되고, 소화 흡수가 채 되지 못한 잉여물 들을 소화시키기 위해 소화기관이 풀가동 되며, 그곳에 혈액이 집중되고, 반면에 배설기관들은 수면상태에 빠져, 노폐물은 점점 더 쌓여서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혈액은 방어적으로 찌꺼기를 혈관내벽에 부착하여 고혈압,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혈액의 순환이 늦어지면서 체온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고객들이 호소하는 원인들 중에 몸이 냉해지고, 신진대사가 잘 안 되는 것들이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알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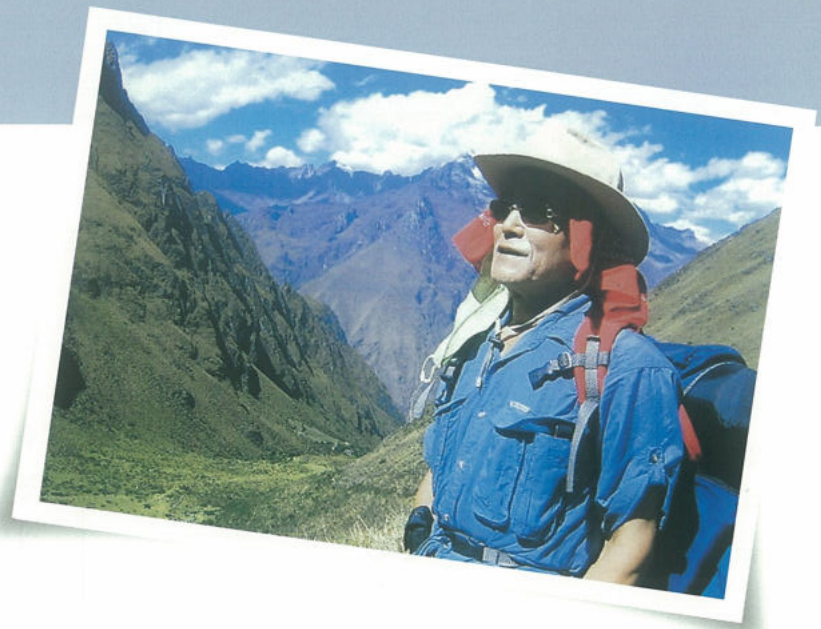
우리가 복약상담을 할 때

왜 약을 복용 시 온수로 복용하고,
충분한 물을 마시게 하여야 되는지,
음식을 먹을 때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어야 하는지,
식사 중에 가능한 물을 왜 적게 먹어야 하는지,
등을 잘 설명하고, 식습관을 바로 잡을 때,
우리 몸은 좋아하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다

우리가 마음을 좀더 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객의 작은 소리에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나 자신도 종종 매너리즘에 빠져 부족한 면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올 가을에는 우리모두 사랑을 가슴에 한 움큼씩 담아서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면 어떨까요 ---



Trail Inca to Machu-Picchu



세계 7대 불가사이 Machu-Picchu!
가파롭고 험난함 그러면서도 수려 웅장한 주위 준봉들의 아름다움이 어떤 다른 곳의 추월도 허락하지 않을 만한 곳으로 이번 산행이 일생에 잊을 수 없는 큰 감명으로 간직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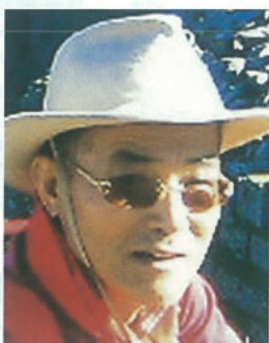
잉카제국의 수도였던 Cusco(해발 3399m) 인근에 펼쳐있는 유적지의 세밀하게 다듬어 쌓아 올린 석조물들을 두루 답사하며 고소에 적응하는 첫날을 보냈다.

아침 일찍 서두러 침낭, 옷가지, 비상식 그리고 식수 등 3박4일간의 등산을 위한 배낭을 짊어지고 아침 일찍 7시에 버스로 핀란드와 페루국기가 나부끼는 Piscacuch(해발 2750m)에 있는 trail로 들어가는 검문소에서 감사를 받고 입산 허가를 얻어 오르기 시작하였다. 이 Trail지역은 핀란드가 관리하는 치외법권 지역으로 되어있다.

cuschaca계곡을 따라 완만하게 오르내림의 하루는 그 옛날 잉카시대 때와 똑같은 태양아래, 산과 숲, 강과 물 그리고 바람과 구름, 야생화 여기저기 세워진 잉카의 옛 성곽으로 인해 time machine을 타고 그 옛날로 되돌아 온 착각 속에 해지기전 Wayllabamba(해발 3000m)camp장에 도착하였다. Porter들이 일찍 도착하여 잠잘 천막과 식당 천막을 성치해 놓고 페루식 음식(닭, 감자, 옥수수)으로 저녁식사까지 모두 완벽하게 준비돼 우리를 맞이하였다.

은하수와 알 수 없는 수많은 별들로 반짝이는 남반구 하늘아래 안데스 산속에서 그 옛날 잉카의 밤은 깊어지고 흠뻑 빠져들었다. 남반구는 한국과는 반대이다 서울은 가을이지만 이곳은 봄

새벽기상과 함께 따끈한 티 한잔으로 영하의 밤 추위에 언 몸을 녹이고 떠다 바치는 따끈한 세숫물로 눈곱때여 내고 서둘러 아침식사를 마치고 오르기 시작하였다. 이번 산행중 최고봉 Warmiwanusca(해발4200m)을 넘는 어려움을 예상해 모두 긴장하고 각오 또한 단단히 하고 오르나 워낙 가파르고 험하며 고도도 만만치 않아 발걸음은 한 없이 느려지고 고소증으로 머리 아프고 메스꺼워하는 대원, 속이 앓 좋은



조 영 만 (3회) 동문

대원들로 어려움이 예상을 훨씬 넘는다.

그래도 16명 전 대원이 California에서 해발 4000m정도 높은 산을 고생하면서도 한두 번씩은 올랐던 대원들이 아닌가.

그러나 등산할 때는 언제나 경험이 많은 적든, 노소 할 것 없이 고소증에는 속수무책이며 다들 힘들기 마찬가지 오직 서로 격려하며 따뜻한 위로와 속도를 느리게 맞추어 나아가는 것 많이 좌절하여 포기하는데서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것 같다.

어제의 여유와 즐거움은 간데없고 주위의 경관 또한 눈에 앓들어오며 가쁜 숨에 천근 만근되는 다리 한발 한발 옮기는 게 전부일 뿐이었다. 새벽 7시에 오르기 시작하여 12반에 4200m 봉을 넘을 수 있었다.

오르기 힘든 만큼 내려가기도 힘들고 위험하기 마찬가지, 언제나 사고는 기진맥진 한 후 내리막에서 나게 마련 관절부상(무릎·발목)을 염려하며 3시간 반 정도 대략 600m를 내려와 Pacaymayu(해발 3600m) camp장에 도착하였다. 오늘밤은 너무 치쳐서 어제 저녁 같은 무수히 반짝이는 별빛아래 낭만도 느끼지 못하고 모두 일찍 수면에 몰입해 내일에 대비하였다.

새 아침이 되어 예정대로 7시에 떠날 예정으로 모든 준비를 하지만 전날의 지친 피로에 몸이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는다. 고비는 어제 넘었지만 지친 몸으로 오늘의 일정이 똑같이 힘들 것 같다.

옛 성스런 진전 Runkuraqay(해발 3790m)에 도달하기 위해 200m를 오르는 데는 첫 발걸음부터가 무척이나 힘들다. 1시간 반 정도 올라와 어김없이 섬세하게 쌓은 석축 조형물과 어떻게

이 높은 봉우리까지 끌어 올 것을 생각했는지 돌로 만든 수로에 흐르는 물을 보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신전에 제사지내기 위해 몸을 깨끗이 씻기 위해 잉카인은 만들었으나 오늘에는 힘들게 여기까지 오르기 위해 따로 범벅된 몸을 씻을 수 있는 물이니 잉카 조상님께 감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 계속되는 내리막 오로지 안전하게 하강하기위해 힘들게 한발 한발 내 던기 1시간여만에 뜻하지 않은 3500m 고지대 정글을 만나 사막에서 만난 Oasis처럼 몸과 맘의 피로를 얼마간 풀 수 있었다.

내려가기도 힘든 급경사의 험한 그리고 정글지대까지 있어 그 옛날 어떻게 찾아서 그곳에 신전을 건축할 수 있었는지 힘들 때 마다 생각해보게 되었다.

두성곽 Sayamarca(해발 3580m)와 Phuyupatamarca 반경에야 Winayhuayna(해발 2650) camp장에 도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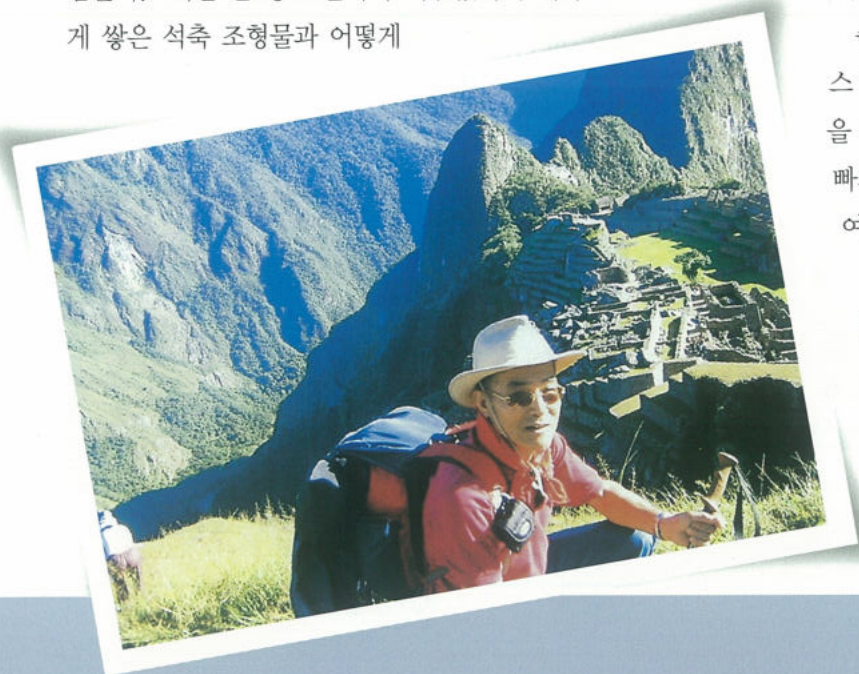
Machu-Picchu장에서 떠나 Head Lamp로 길을 밝히며 내려가기 20여분 만에 입산매표소에 도착하였다. 이미 그곳에는 피부색이 다르지만 같은 생각인 50여명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Machu-Picchu는 만년설 덮인 안데스 고봉들에 둘러싸인 낮은 2400m 봉우리 위해 있으나 내려갔다. 다시 오르는 300m의 가파른 언덕은 끝까지 우리 일행을 힘들게 하였다.

맑고 상쾌한 공기로 위로 삼고 힘든 오름을 한지 2시간여만에 마지막고개에 오르니 저 멀리 아래 신전이 펼쳐져 있지 않은가

순간 모든 게 정지되어 버린 것 같았다. 안데스 준봉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는 신전을 볼 때까지 무아지경이었고 신전골목 골목에 빠져 잉카의 숨결을 느끼며 반나절을 지나 잉카여 안녕하였다.

P.S 3박4일 Trail Inca to Machu-Picchu 세계 7대 불가사의를 느낄 수 있는 최고의 course로 추천하고 있지만 절대로 최상의 체력과 훈련 없이는 삼가시길 바라고 싶습니다.





9월 3일 여동문회 월례회 오전 12시
• 장 소 : 세종호텔



10월 10일 병원약사위원회 오후 7시
• 장 소 : 신세계백화점 10층 일식집



9월 8일 모교의 날 "모교의 날 체육대회"
• 장 소 : 88CC



10월 11일 7회 졸업 45주년 기념식 오후 5시
• 장 소 : 인천파라다이스호텔



9월 8일 동문회 모교교수 초청 오후 6시
• 장 소 : 팔레스호텔



10월 12일 모교의 날 체육대회 오전 10시
• 장 소 : 중대부속중학교 운동장



9월 18일 중앙대학 약학대학 착공식 오전 11시
• 장 소 : 루이스가든



9월 23일 약학대학 장학금 수여식 오후 2시
• 장 소 : 교수세미나실

Event



10월 25일 12회 졸업 40주년 기념식 (1박 2일)
 • 장 소 : 양평 VIP리조트



2월 19일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학위수여식 오후 2시
 • 장 소 : 학생회관 3층



11월 15일 22회 졸업 30주년 기념식 오후 6시
 • 장 소 : 프라자호텔 4층



2월 25일 여동문회 신년교례 및 월례회 12시
 • 장 소 : 동문회관



11월 16일 32회 졸업 20주년 기념식 오후 6시
 • 장 소 : 양재동 외교안보센터



2월 11일 서울시약사회 정기총회 오후 3시
 • 수상자 : 서울시약사대상 권혁구(9회) 고문,
 서울시장표창장 최두주(25회) 부회장 수상



11월 29일 - 30일 초도이사회 (1박 2일)
 • 장 소 : 그레이 연수원



2월 26일 대한약사회 정기총회 오후 3시
 • 장 소 : 대한약사회강당 4층
 • 수상자 : 대한약사회장 문재빈(13회) 부회장,
 약연상 박동규(13회) 부회장, 유태일(19회) 이사,
 박상용(22회) 동문
 대약회장 표창패 하충렬(23회) 부회장

발전기금 조성 내역(기수별)

총 31억 3천 6백 2십 5만 9천원 (2009. 3. 18까지)

교 수 총 21,460 만원

(교내)	손의동(700+500), 최영욱(1000), 염정록(700), 임채욱(500), 김하형(500), 천영진(500), 김기호(500), 한상범(500), 조사연(500), 민경훈(500)	임철부(1,000), 이민원(1000), 홍순각(600), 김대경(500) 김홍진(500) 손동현(500) 허인회(500) 이재휘(500) 김종갑(500)	김미영(1000), 김창종(700), 이도익(500), 황완균(500), 심상수(500), 이광표(500), 황광우(500), 최형균(500), 오경택(500),
(타교)	김진학(1000), 오유진(300), 염윤기(300), 정지훈(200),	제현동(500), 주왕기(300), 석대은(300), 한성순(100),	김동석(300), 임세진(300), 권광일(300), 김형춘(360)

학 생 총 5,350 만원

동문회장단 총 31,400 만원

조의환(11000), 권혁구(1000), 유영후(1000), 안병식(1000), 박종화(1000), 박호일(800+500), 정재일(500), 이기안·노신희(500), 임상목(1000), 김연희(500), 이규진(500), 유정사(1000), 정덕호(500), 황공용(500), 황문상(500), 강옥희(500), 서국진(500), 윤대봉(500), 박석동(500), 정명진(500), 김경오(500), 이규식(500), 김현태(500), 김종열(500), 김승재(500), 김종성(400), 김승태(400), 정찬현(400+100), 김수배(300), 이호섭(300), 박계환(300), 이경욱(300), 김영식(300), 허근희(300), 박찬희(300), 노덕재(300), 조기현(300), 양희익(300), 이내홍(300)

단체 기부 총 10,140 만원

- 중삼친목회(300)
- 91학번 친목회(이용준 외, 300)
- 7회 동기회(500)
- 64예중회 회원일동(100)
- 기업체후원(700)
- 1회 동문회(300)
- 2회 졸업생(200)
- 부산동문회(50),
- 약제반동문회(150),
- 약학대학 동문회(800)
- 미주(L.A.) 3회 동기회(50)
- 미생실험반 동문회(300)
- 7회 약우회(500)
- 약대기금(3200)
- 약품물리화학동문회(300+1440)
- 중앙대11회 40주년 기념(300)
- 12회 동문회(500),
- 나사모(100)
- 안산동문회(50)

학부모 및 기타 기부 총 65,459 만원

- 한총강 '02 한인빈 학부모, 300
- 정형식(50,000+10,000)
- 오호정(300)
- 송병준(10/9 심포지엄 연사,100)
- 중앙대 50계단회(대표:정영복) (100)
- 한미약품(4659)

개인·부부 동문 총 182,040만원

기수별 통계

(단위 : 만원)

- (1회) 손동현(500), 이광표(500), 오유진(300), 홍흥만(300)
- (2회) 고두흔·박명자(700), 홍순각(600), 김길수(300), 황인규(300), 황재수(100+100), 한성순(100)
- (3회) 김용욱(35000), 한만우(1000), 김석재(300), 조영만·이정자(50)
- (4회) 김기호(500), 허인회(500), 김현용(300), 박노일(300), 이연수(300), 천홍기(300)
- (5회) 이해석·강태일 (1000), 박명자·고두흔 (700), 이송학(300) 정훈교(100)
- (6회) 임철부(1000), 김경희(300), 김동열(300), 김종구(300), 박정배(300), 신정숙(300), 안병한(300), 유상열(300), 추의호(300), 홍병석(300), 이준장(100), 홍성호(100), 이현영(300)
- (7회) 이기황(1150), 유영후(1000), 강승안(500), 김옥남(500), 이양현(500), 정재일(500), 이기안·노신희(500) 김명일(300), 김정부(300), 김정웅(300), 김정재(300), 박명신(300), 박옥규(300), 유윤자(300), 이능세(300), 인고길(300), 임종홍(300), 차승현(300), 한철희(300), 정연홍(300), 조경배(300), 권기동(100), 이준종(60), 이정자·조영만(50)
- (8회) 이백천(1500), 임상목(1000), 김형이(500), 한석원(500), 최병준(400), 최재욱(300), 문옥자(300), 박성애(300), 박찬수(300), 윤주섭(300), 이조열(300), 장영재(300), 정재용(300), 주왕기·김희재(300), 허근희(300), 김홍재(300), 배영애(100), 신현우(100), 조의환(11000)
- (9회) 권혁구(1000), 김홍래(1000), 김명부(500), 서황석(500), 이규진(500), 노신희·이기안(500), 상병준(300), 이근배(100)
- (10회) 방순환(12000), 박호일(800+500), 유정사(500+500), 김광일(500), 이대운(300), 정영기(300), 조규동(300), 이양원(300), 장영조(300), 정승수(300), 정수길(300), 김삼균(300), 서정목(300)
- (11회) 정덕호(500), 김창종(500), 황문상(500), 황공용(500), 홍금자·남기탁(500), 김승업(300), 민대식(300), 박상희(300), 박찬희(300), 김정길(100), 최옥출(100), 이철규(50), 송병기(100)
- (12회) 박영찬(1000), 김용환(1000), 최덕구(1000),

- 심재웅·구옥자(1000), 김송배(1000), 황순오(1000), 김 구(500+500), 이성우(500), 남기탁·홍금재(500), 강옥희(500), 우준해(500), 노덕재(300), 우홍길(300), 염윤기(300), 이정희(300), 이호섭(300), 최병호(300), 김대건(300), 문혜성(240), 최창목(100), 민명임(100), 김초성(100), 조택상(500)
- 〈13회〉 안병식(1000), 이종각·박종애(500), 문재빈·김애련(500), 서국진(500), 조성복·홍순경(500), 김종성(400), 박동규(300), 윤창현(300), 조중목(300), 김병현(500), 서효석(300), 김신미(10)
- 〈14회〉 김명웅(1000), 정도연(1000), 김종열(500), 윤대봉(500),故이규식(500), 김원순(300), 정진모(300), 박기진(300),
- 〈15회〉 조찬휘(300+200), 김용익(300), 석대은(300), 안민철(300), 이인석(300), 위혜주(300), 구옥자·심재웅(1000), 박영경(300), 황인영(300)
- 〈16회〉 강명채(500), 홍순경·조성복(500), 박종애·이종각(500), 장건(300), 최광식·전승희(500), 김광식(300), 김선기(300), 이상규(300), 한인희(300), 조기현(300), 윤영로(200), 김성광(100), 권희문(100)
- 〈17회〉 김인형(500), 선우영환·방금숙(500), 김민수(500) 신상직(500), 김대희(400), 양희익(300), 유종관(300), 장재인(300), 전상훈(300), 정갑진(300), 주원표(300), 최해광(300)
- 〈18회〉 강응모·성낙순(500), 김윤순(500), 정명진(500), 김기명(300), 조중형(300), 김애경(300), 김철길(300), 박계환(300), 남애숙(200)
- 〈19회〉 김경오(500), 권창호(500), 신성희(500), 권영훈(300), 김동희(300), 박호식(300), 옥태석(300), 이경옥(300), 이창욱(300), 최종숙(300), 유환성(300), 권광일(300)
- 〈20회〉 임경원·이현숙(1,000), 박기배(300+300), 방금숙·선우영환(500), 정찬현(400+100), 이상일(500), 김현태(500), 김홍진(500), 김명섭(330), 강혜옥(300), 김종갑(300), 송열호(300), 서종원(300), 송창수(300), 오상동(300), 유영내(300), 윤춘수(300), 이신규(300), 이극선(300), 임구래(300), 정영수(300), 지태현(300), 차재근(300), 최운환(300), 정영수(300), 김형춘(360)
- 〈21회〉 이세진(500), 백기홍(500), 이상일(500), 백운경(550), 박제천(500), 김종효(500), 이병규(500), 박전희(500), 지기봉(500), 이상준(500), 최병철(500), 장철숙(100), 홍종오(500), 김정기(300), 김성만(300), 한성희(300), 안병현(300), 신상길(300), 송진용(300), 이진배(300), 유승률(300), 김병무(300), 김수배(300), 어경남(300), 김대일(300), 강성무(300), 이규섭(300), 전명선·김민숙(300+300)
- 〈22회〉 손의동(700+500), 장용운(300+500), 정진호·강명희(500), 장상대(500), 김홍진(500), 고석순(500), 이준상(500), 유대식(300+200), 오황영(400), 한만영(360), 강희윤(300), 김철수(300), 박동우(300), 전일오(300), 이정석(300), 최광훈(300), 심재호(300), 이영욱(300), 이상돈(100)
- 〈23회〉 박종화(1,050), 권석형(500), 이도익(500), 공인호(300), 김수종(300), 김영식(300), 김항만(300), 양재엽(300), 정원국(300), 이승해(300), 이원길(300), 임상규(300), 임준석(300), 정덕기(300), 조근태(300), 강호영(100), 이정대(100), 박희용(100)
- 〈24회〉 최영욱(1,000), 윤규형(500), 김관식(500), 최재윤·김윤경(500), 조중래(500), 김승재·김희식(500), 임무호(500), 함삼균(50+300), 이범도(310), 오동근(300), 윤원철(300), 이광섭(300), 이영주(300), 정상수(300), 김상현(300), 홍용기(300), 황규진(300), 함한성(300), 이규삼(100), 김태두(300)
- 〈25회〉 이민원(1,000), 손현우(600), 성낙순·강응모(500), 이재희·김은진(500), 조석현·임홍욱(500), 위성건(500), 고성권(300), 김영식(300), 김희섭(300), 이내홍(300), 이현수(300), 조순현(300), 최두주(300), 김준규(100+300), 권세형(300)
- 〈26회〉 심상수(500), 이창훈·이숙희(500), 황완균(500), 하재일(500), 김안식(300+100), 김영후(300), 라종우(300), 진희역(300), 최민규(300), 문형철(300), 백낙기(300), 선우일원(300), 이영준(300), 이종량(300), 조용백(300), 김학철(300)
- 〈27회〉 안산 79학번 동기회(김덕진, 오순용, 오홍설, 이상필, 이창오, 이현수, 한봉길, 최면용 각각 300씩 (총 2,400), 박수길·이정애(500), 방만성·조순연(500) 김명혜·최평배(500), 최기선(310), 곽순재(300), 김정호(300), 남상진(300), 박영달(300), 변영신(300), 안희영(300), 양건모(300), 유기조(300), 오영돈(300), 현기원(300), 홍인숙(300), 이무택(300), 최종식(300), 이선애(100)
- 〈28회〉 임재욱(500), 이숙희·이창훈(500), 김윤경·최재윤(500), 김유근(500), 김희식·김승재(500), 이영주(500), 김광선(300), 김미경(300), 김명희(300), 안희규(300), 양덕숙(300), 조효금(300), 이병천(300), 이용해(300), 이해룡(300), 임세진(300), 장원규(300), 전금용(300), 조상오(300), 신길덕(300), 장원규(500), 한용문·김미자(300), 박용석(100)
- 〈29회〉 김은진·이재희(500), 이 준(310), 강대용(300), 강철선(300), 김영재(300), 손병로(300), 안성진(300), 유종운(300), 유인석(300), 이종민(300), 서경원(300), 이 철(300), 장우성(300), 정진호(300)
- 〈30회〉 김광식·윤기숙(500), 이장무·김명희(500), 조순연·방만성(500), 김미영(300), 박복자(300), 신일균(300), 김현학(300), 이인재(300), 장부재(300), 조덕희(300), 천세영(300), 최병원(300), 황유세(300), 고석일(300), 박종진(300), 서봉호(100)
- 〈31회〉 이현숙·임경원(1,000), 김하형(500), 김진홍(300), 변동성(300), 박건규(50)
- 〈32회〉 고은미(300), 박은미(300), 조양연(300), 서수경(300), 채영주(400+100+100), 서용욱(240)
- 〈33회〉 이재휘(500), 임희원(300), 강석연(300), 박재훈(240)
- 〈34회〉 민성철(300), 배규환(300), 이선우(300), 한일권(300), 김영미(20)
- 〈35회〉 황광우(500), 곽정근(300), 권준환(300)
- 〈36회〉 안영운(300), 우경애(300), 임성호(300), 김동석(300), 김용구(300), 박선영(200), 방극상(50)
- 〈37회〉 정병욱(300), 방준석(300), 정지훈(200), 오상희(100), 김학림(100)
- 〈38회〉 오경택(500), 박용석(300), 조재형(300), 제현동(500), 박양혜(100)
- 〈39회〉 민경훈(500), 박종호(300), 박종혁(300), 양성준(100)

<40회> 박성욱(500), 한국약품(이병두, 300)
 <41회> 구영준(300)
 <43회> 신명숙(300), 강규태(100+300), 김중호(100)
 <44회> 김수길(300), 문상희(100)

지부별 통계

(단위 : 만원)

<서울강남구 지부 19명>

방순환(1200), 윤대봉(500), 이 준(310), 김현용(300), 박옥규(300), 김홍자(300), 정송수(300), 이정희(300), 정진모(300), 이인석(300), 김광식(300), 유대식(500), 황규진(300), 서경원(300), 신명숙(300), 이근배(100), 정훈교(100), 김태두(300)

<서울강동구 지부 12명>

조성복 · 홍순경(500), 김삼균(300), 김용의(300), 여경남(300), 오동근(300), 강철선(300), 이선우(300), 권준한(300), 안영윤(300), 박웅석(300), 조중목(300), 김홍진(500)

<서울강서, 도봉구지부 4명>

심재웅 · 고옥자(1000), 신상직(500), 조상오(300), 조효금(300)

<서울강서, 양천구 지부 15명>

유상열(300), 박찬수(300), 민대식(300), 노덕재(300), 박호식(300), 오상동(300), 유영내(300), 최두주(300), 이용해(300), 이종민(300), 강대용(300), 임성호(300), 김애경(300), 김명미(20), 김민수(500)

<서울관악구 지부 7명>

이기안 · 노신희(500) 문재빈 · 김애련(500), 김종열(500), 박석동(500), 우상규(300), 안희영(300), 문혜성(240)

<서울마포구 지부 2명>

오영돈(300), 양덕숙(300)

<서울광진, 성동구 지부 5명>

양희익(300), 김영식(300), 유승률(300), 권희문(100), 최창묵(100)

<서울구로,금천구 지부 6명>

이해석 · 강태일(1000), 정진호 · 강명희(500), 김경희(300), 이호섭(300), 이경옥(300), 오상희(100)

<서울노원구 지부 3명>

방만성 · 조순연(500), 이병규(500), 김수길(300)

<서울동대문구 지부 3명>

김경오(500), 김종구(300), 신정숙(300),

<서울동작구 지부 5명>

고두흔 · 박명재(700), 이종각 · 박종애(500), 안병현(300), 조기현(300), 김명희(300)

<서울서대문구 지부 5명>

한석원(500), 정명진(500), 황순오(1000), 유인석(300), 문옥자(300)

<서울서초구 지부11명>

황공용(500), 추의호(300), 이능세(300), 장영재(300), 안민철(300), 김기명(300), 박계환(300), 이규삼(100), 이선애(100), 이준창(100), 김광일(500)

<서울성북구 지부2명> 조찬휘(300+200), 유종관(300)

<서울송파구 지부 7명>

이규진(500), 김영부(500), 위성건(500), 김영일(300), 김미경(300), 진희역(300)

<서울영등포구 지부 6명>

권혁구(1000),유정사(500+500),이상일(500), 김대일(300), 전금용(300), 강규태(100+300)

<서울용산구 지부 5명>

故이규식(500), 박명신(300), 이조열(300), 배영애(100), 서봉호(100)

<서울은평구 지부 10명>

임상묵(1000), 윤주섭(300), 정재용(300), 정갑진(300), 선우일원(300), 배규환(300), 곽정근(300), 우경애(300), 정병욱(300), 문상희(100)

<서울종로구 지부 12명>

황문상(500), 강옥희(500), 최광식 · 전순희(500), 전상훈(300), 주완표(300), 조중형(300), 임준석(300), 함한성(300), 이해룡(300), 이병천(300), 최면용(300)

<서울중구 지부 3명>

박영천(1000), 조규동(300), 조근태(300)

<서울중랑구지부 2명> 한인희(300), 정덕기(300)

<인천시 지부 23명>

유영후(1000), 선우영환 · 방금숙(500), 조석현 · 임흥옥(500), 박제천(500), 지기봉(500), 신상길(300), 이양현(500), 김대희(400), 장용운(300+500), 윤춘수(300), 장재민(300), 전명선 · 김민숙(300), 김수종(300), 김안식(300+100), 문형철(300), 최병원(300), 김현학(300), 김동희(300), 전명희(300), 김용구(300), 고석일(300), 서용욱(240), 이경숙(50) ,

<경기 군포시 지부 1명> 이영주(500)

<경기 김포시 지부 1명> 김종성(400)

<경기 동두천시 지부 1명> 최광훈(300)

<경기 고양시 지부 13명>

김홍래(1000), 이재희 · 김은진(500), 박기배(300+300), 신성희(500), 김춘규(100+300), 함삼균(50+300), 김수길(300), 이연수(300), 한용문 · 김미재(300), 홍인숙(300), 박선영(200), 박건규(50), 방극상(50)

<경기 광명시 지부 16명>

안병식(1000), 김관식(500), 김형미(500), 최기선(310), 이송학(300), 인고길(300), 이양원(300), 김병무(300), 공인호(300), 임상규(300), 장부자(300), 고은미(300), 민성철(300), 송진용(300), 박재훈(240), 김중호(100)

<경기 부천시 지부 4명>

이창훈 · 이숙희(500), 김유곤(500), 김미영(300), 임희원(300),

<경기 성남시 지부 16명>

김 구(500+500), 손현우(600), 김인형(500), 최병호(300), 서종원(300), 강성무(300), 김철수(300), 김항만(300), 윤원철(300), 변영신(300), 서정목(300), 박상희(300), 유기조(300), 변동성(300), 박종호(300), 이명준(300)

<경기 수원시 지부 19명>

임경원 · 이현숙(1000), 김현태(500), 이세진(500), 강응모 · 성낙순(500), 채영주(400+100+100), 김영혜 · 최명배(500), 김청길(300), 이내홍(300),

김영후(300), 김영재(300), 홍흥만(300), 김정자(300)
권세형(300), 한일권(300), 이무택(300), 최충식(300),
정연홍(300), 윤영로(200), 신현우(100)

〈경기 시흥 지부 4명〉

조양연(300), 상병준(300), 유종윤(300), 장우성(300)

〈경기 안산시 지부 15명〉

김승재·김희식(500), 최재윤·김윤경(500), 이범도(310),
김석자(300), 이창욱(300), 박복재(300), 김덕진(300),
오순용(300), 오홍설(300), 이상필(300), 이창오(300),
한봉길(300), 장원규(300), 이현수(300), 서효석(300),

〈경기 구리시 3명〉 최덕구(1000), 황인규(300), 김희섭(300)

〈경기 과천시 1명〉 강희운(300)

〈경기 안양시 지부 22명〉

정찬현(400+100), 안병한(300), 박동규(300), 위혜주(300),
최해광(300), 이극선(300), 이신규(300), 임구래(300),
현기원(300), 박영달(300), 양건모(300), 안희규(300),
안성진(300), 이 철(300), 손병로(300), 신일균(300),
김진홍(300), 조용백(300), 민병임(100), 이상돈(100),
이철규(50), 이상준(500)

〈경기파주시 지부 1명〉 권창호(500)

〈경기평택시 지부 7명〉

박수길·이정아(500), 김영섭(330), 김정부(300),
한철희(300), 최운환(300), 양재업(300), 라종우(300)

〈경기 오산시 1명〉 이원길(300)

〈경기 용인시 2명〉 김광식, 윤기숙(500), 조택상(500)

〈경기 하남시 2명〉 한성희(300), 이현수(300)

〈경기 화성시 4명〉

송창수(300), 이정석(300), 김정호(300), 이진배(300)

〈경기 포천시 1명〉 차승현(300)

〈전북지부 1명〉 김종갑(300)

〈울산광역시 1명〉 이정대(100)

〈경북칠곡군 지부 1명〉 유환성(300)

〈경북김천시 지부 6명〉

심재호(300), 최재욱(300), 김성만(300), 김길수(300),
김정기(300), 조경배(300)

〈경북안동 지부1명〉 임무호(500)

〈경북의성군 1명〉 전일오(300)

〈대구 광역시 7명〉

김용환(1000), 장상대(500), 우준하(500), 김윤순(500),
백기홍(500), 최중숙(300), 남애숙(200)

〈대전시지부 3명〉 이규섭(300), 고석순(500), 홍종오(500)

〈전북 김제시 1명〉 최병준(400)

〈충남 보령시 1명〉 정덕호(550)

〈충남 홍성시 1명〉 조덕희(300)

〈충남천안시지부 3명〉 이장무·김영희(500), 김선기(300), 최옥출(100)

〈충남아산시지부 1명〉 백운경(500)

〈충북제천시지부 3명〉 하재일(500), 홍성호(100), 송병기(100)

〈경남 창원시 1명〉 김광선(300)

〈경남 밀양시 4명〉 정용국(300), 김대건(300), 박영경(300), 박종진(300)

〈부산시지부 26명〉

이백천(1000+500), 홍금자·남기탁(500), 조중래(500),
우홍길(300), 김원순(300), 옥태석(300), 강혜옥(300),
차재근(300), 송열호(300), 이영주(300), 김상현(300),

백낙기(300), 이종량(300), 남상진(300), 황유세(300),
박은미(300), 김정길(100), 김초성(100), 박용석(100),
강호영(100), 장철숙(100+100), 권기동(100), 이현영(300)
황인영(300), 김승배(1,000)

〈제주지부 3명〉 김병현(500), 오황영(400), 박기진(300)

〈강원지부 4명〉 김정웅(300), 이인자(300), 김학철(300), 신길득(300)

〈미주지부 10명〉

이기황(1150), 서황석(500), 김옥남(500), 박성애(300),
조재형(300), 김성광(100), 김학림(100), 이준종(60),
조영만·이정재(50), LA3회 동기회(50)

〈병원 5명〉

이대운(300), 김승업(300), 박찬희(300), 윤창현(300),
이광섭(300)

〈학계 41명〉

최영욱(1000), 임철부(1000), 김미영(1000), 이민원(1000),
김창중(700), 염정록(700), 손외동(700+500), 홍순각(600),
이도익(500), 임채욱(500), 김대경(500), 황완균(500),
김하형(500), 김홍진(500), 심상수(500), 천영진(500),
황광우(500), 한상범(500), 이재휘(500), 최형균(500),
조사연(500), 오경택(500), 민경훈(500), 김기호(500),
허인회(500), 이광표(500), 김종갑(500), 손동현(500),
고성관(300), 권광일(300), 석대은(300),
주왕기·김회재(300), 오유진(300), 임세진(300),
엄윤기(300), 한성순(100), 김진학(1000), 김동석(300),
제현동(500), 정지훈(200), 김형춘(360)

〈제약계 및 기업 ,공직 47명〉

정형식(50,000+10,000), 김용욱(35000), 조의환(11000),
박종화(1050), 한만우(1000), 김명웅(1000), 정도연(1000)
박호일(800+500), 윤규형(500), 강승안(500), 권석형(500),
서국진(500), 강명채(500), 이성우(500), 이상일(500),
천흥기(300), 홍병석(300), 장영조(300), 정수길(300)
정영기(300), 정영수(300), 지태현(300), 김수배(300),
박동우(300), 이승하(300), 정상수(300), 홍용기(300),
김영식(300), 조순현(300), 정진호(300), 천세영(300),
이병두(300), 구영준(300), 박희용(100), 최병철(500),
김중호(500), 박전희(500), 이성욱(500), 박성욱(500),
이준상(500), 장 건(300), 이영욱(300), 방준석(300),
한만영(360), 강석연(300), 서수경(300), 박양혜(100),
양성준(100)

〈기타 34명〉

학생회(5350),약대기금(3200),기업체후원(700),
정재일(500), 동기회(500), 약우회(500), 하근희(300),
권영훈(300), 최민규(300), 91학번친목회(300),
중삼친목회(300), 박노일(300), 미생실험반 동문회(300),
임종홍(300), 김동열(300), 한중강한인민 학부모(300),
유운재(300), 박정배(300), 객순재(300), 12회동문회(500),
1회동문회(300), 박종혁(300), 약수회(180)
약품물리화학반 동문회(300+1440), 오호정(300),
중앙대 11회 40주년 기념(300), 2회 졸업생 일동(200),
64예중회(100), 송병준(100), 황재수(100+100),
중앙대 50계단회(정영복)(100), 김신미(10), 한미약품(4659)

동문회비 및 기금납부자

회장단회비 (연 240,000원)

- (10회) 유정사, 김광일, 김정남, 방순환, 변도문, 이대운, 이영민, 정수길
- (11회) 황광웅, 정덕호, 황문상
- (12회) 이관하, 노덕재, 이호섭, 이호훈, 김 구, 이성우
- (13회) 문재민, 박동규, 서국진, 최창업
- (14회) 조길도, 윤대봉, 한수홍, 김종렬
- (15회) 임영식, 김승의, 조찬휘
- (16회) 최광식, 허사길
- (17회) 김성지, 양희익, 선우영환, 신상직, 장재인, 주원표
- (18회) 김기명, 조중홍, 김애경
- (19회) 이경옥, 박호식, 윤건섭, 김경오
- (20회) 이신규, 김현태, 박기배, 정찬현, 유영내
- (21회) 김수배, 홍종오, 이세진
- (22회) 강희윤, 이한희, 차달성, 유대식, 최광훈
- (23회) 김영식, 박종화, 임준석, 정덕기, 하종렬
- (24회) 이규삼, 김승재, 이범도, 함성균, 김관식
- (25회) 최두주, 이내홍, 조석현
- (26회) 김정수
- (27회) 최면용, 박영달, 현기원, 오순용, 연정희
- (28회) 안희규, 이상수, 양덕숙, 김영희, 곽순자
- (30회) 김광식, 고석일, 김경자

이사회비 (연 120,000원)

- (1회) 김옥동, 김기홍, 손동현, 홍홍만, 조덕렬
- (3회) 안재민, 김석자, 최종목, 노인배, 박종순
- (5회) 김재운, 김상오, 김영배, 김명섭
- (6회) 김동열, 안병한
- (6회) 신정숙, 박정배
- (7회) 서명규, 김영일
- (8회) 김돈기, 조의환, 박번일
- (9회) 이근배, 권태섭, 김홍래, 박성학, 김영빈, 강군모, 박장우, 문영동
- (10회) 이홍수, 전광석, 박광일, 심수일, 이양원, 박호일, 전수원, 정영기
- (11회) 김미자, 신명숙, 박승보
- (12회) 강옥희, 이정구, 조택상, 박영찬, 우준하
- (13회) 안병식, 이우식
- (14회) 김명웅, 정도연, 조양연, 양인승
- (15회) 이명숙, 김형수, 권영선
- (16회) 최창원
- (13회) 이종각
- (18회) 강응모
- (20회) 박영근, 이영희
- (21회) 이상준
- (24회) 정종근
- (25회) 고성권
- (26회) 한갑현, 김정수A, 최민규
- (29회) 서경원
- (30회) 최병원

일반회비 (연 20,000원)

- (1회) 조성애
- (2회) 김성빈, 홍순각, 박병한, 김홍식
- (3회) 손석우, 최동현, 임종환, 구용서, 오순실, 이인식, 이현우
- (4회) 김영대, 이영아, 나수연, 오성수, 이경석, 정인찬, 홍범표, 최종화
- (5회) 강희복, 임맹순, 손규산, 임갑환, 윤재훈, 강태일
- (6회) 양현홍, 신현수, 황선창, 신의명, 김명기, 이상호, 김태형, 문종찬, 홍현표, 이풍기, 홍성호, 김연빈
- (7회) 이상현, 이영은, 박종원, 박래식, 조경신, 한경석, 전승규, 김영환, 정연홍, 유효희, 송정애, 김정웅, 유종현, 김경동
- (8회) 김복근, 박영우, 권태수, 엄규중, 최영자, 유재우, 윤광중, 서동섭, 유성홍, 정재영, 임진택, 정수광, 김형이, 최문정, 안덕기, 이영복, 조수현, 임성빈, 최승치, 정달수, 최재욱, 허정자, 김기중
- (9회) 이달우, 박정자, 박종환, 장성익, 권오성, 한정희, 김학진
- (10회) 박상길
- (11회) 강봉천, 강일성, 이의공, 안홍신, 김기승, 유홍문, 차영진, 구지역, 이범진, 송병기, 허만웅
- (12회) 박영규, 김동욱, 유건수, 장석훈, 김용환, 김찬구, 김대건, 이순우, 오형철, 전광일, 임순성, 이종욱, 박홍식, 한정수, 김광혁, 현병호, 김승희, 문해성, 박병달
- (13회) 권일순, 조경린, 안상희, 김시미, 유희동, 김희겸, 김인호, 김형운, 우동진
- (14회) 이용성, 김동원, 최종택, 안태화, 서정애, 우영철, 현해경, 김진행,

- (15회) 조영연, 김윤국, 박찬임
- (16회) 이상섭, 박상환, 김관호, 조춘식, 이규주, 박종애, 신규언, 이재용, 김제성, 백승복
- (17회) 최문배, 김상진, 안병조, 박재식, 유종관, 원종천, 신승백
- (18회) 육득윤, 이복숙, 오윤숙, 정태은
- (19회) 김상좌, 배영덕, 조안제, 권영훈, 남윤수
- (20회) 박문수, 임경원, 황양호, 이종훈, 한광식, 최은환, 조진환, 이상일, 윤춘수, 김종갑, 이광영, 남덕자, 최인걸, 방금숙, 김길주, 박문수, 김영남
- (21회) 조 복, 노재하, 이진배, 어경남, 장창만, 조홍윤, 이진경, 송주식, 김성만
- (22회) 구재호, 이순영, 한상훈, 김중근, 김광준, 천경호, 양희복, 한만영, 전일수, 이주원
- (23회) 한지란, 김수중, 나용대, 김재한, 조병학, 안병만, 최병일, 박상진, 은성기, 최경선, 공인호
- (24회) 박은원, 박용석, 배성식, 최금순, 한성엽, 홍용기, 심영철
- (25회) 이수근, 송태수, 김창현, 김두수, 문태화, 김완기, 김미희, 이수영, 이영제
- (26회) 박병식, 박전원, 이순아, 조필련, 윤용혁, 반수호, 권승상, 손영득, 박승순, 김안식, 이영준, 김형남, 최교석, 박주돈, 조한미, 윤광중, 이강욱, 나종우, 조병호, 이근주, 김학철, 성정희
- (27회) 오영돈, 김창식, 변옥희, 박상규, 고영주, 이혜숙, 박수길, 홍인숙
- (28회) 이혁빈, 남궁용, 고재호
- (29회) 장우성, 한규인, 김현태, 안성진, 고현성, 이상원
- (30회) 이호일, 조민숙, 홍영미, 고은숙, 서정봉, 손은실, 이경숙, 김영림, 윤기숙, 김선경, 강성래, 박필신, 최현희
- (31회) 김양수, 유영숙, 이정희, 이춘노, 유인숙
- (32회) 채영주, 김형기, 이호숙, 김광복, 안승희, 이경우, 이명선, 주재현
- (33회) 윤종배, 고복연, 유정순
- (34회) 김중국, 박상권
- (35회) 김 진, 오창현, 예현주
- (36회) 장문정, 정혜미, 김원철, 강정희, 김영준
- (37회) 박정면, 한덕희, 조구욱, 전상인
- (38회) 정필련
- (39회) 임재용, 방근철, 전병선
- (40회) 김우승
- (41회) 이미경, 최현진
- (42회) 최장순, 이창경, 민지홍
- (43회) 남주영, 김선남, 강전욱
- (44회) 고정봉, 이승준, 정영자
- (46회) 김은수, 김윤경
- (50회) 김상철, 정홍근, 강지연, 정원희
- (51회) 권운희, 김언정

회원 경조 소식



- 7월 26일 정수길(10회) 부회장 자녀결혼
- 8월 23일 박옥규(7회) 동문 자녀결혼
- 8월 24일 강군모(9회) 이사 자녀결혼
- 10월 18일 김영일(7회) 이사 자녀결혼
- 11월 13일 권혁구(9회) 고문 자녀결혼
- 12월 13일 김성지(17회) 부회장 자녀결혼
- 12월 19일 남기탁(12회) 이사 자녀결혼
- 1월 10일 최영덕(15회) 부회장 자녀결혼
- 1월 17일 정영우(13회) 동문 자녀결혼



- 8월 31일 최종목(3회) 고문 빙모상
- 9월 2일 최원국(21회) 동문 빙모상
- 9월 15일 이무택(27회) 동문 모친상
- 10월 2일 노석준(12회) 동문 모친상
- 10월 14일 박번일(8회) 이사 빙모상
- 10월 14일 조형래(21회) 동문 부친상
- 10월 20일 김영택(20회) 동문 시부상
- 10월 21일 이근배(9회) 동문 빙모상
- 10월 27일 조현행(10회) 동문 별세
- 10월 29일 곽순자(27회) 부회장 부친상
- 10월 31일 이종인(25회) 동문 부친상
- 11월 26일 최창업(13회) 부회장 모친상
- 12월 9일 한성희(21회) 동문 모친상
- 12월 13일 김승대(15회) 부회장 별세
- 12월 23일 이인식(15회) 동문 모친상
- 12월 27일 이규섭(21회) 동문 모친상
- 12월 27일 한능박(21회) 동문 부친상
- 1월 31일 하충렬(23회) 부회장 부친상
- 2월 18일 이용원(7회) 이사 부친상
- 2월 27일 박희용(23회) 동문 빙모상

장학금 수여식



2009년도 1학기 약학대학 동문회 장학금 수혜자

장학금명	장학금액	전공	학번	성명	학년
본동문회 (7,000,000)	700,000	약학과	20072698	김준기	3
	700,000	제약학	20072762	이혜주	3
	700,000	제약학	20062675	김예니	4
	700,000	약학과	20072749	이동은	3
	700,000	약학과	20072740	오혜리	3
	700,000	제약학	20072690	김민정	3
	700,000	약학과	20072752	이석영	3
	700,000	약학과	20032706	장재영	4
	700,000	약학과	20082746	변혜영	2
	700,000	약학과	20072794	한세은	3
부산동문회 (500,000)	500,000	제약학	20062685	김지선	4

약학대학 동문회 장학금 수여식



장학금명	장학금액	전공	학번	성명	학년
안산동문회 (500,000)	500,000	제약학	20062721	오승연	4
여자동문회 (1,000,000)	500,000	제약학	20062734	이윤정	4
	500,000	약학과	20082800	정희예	2
약제반동문회 (1,500,000)	1,500,000	제약학	20072750	이상곤	3
약수회동문회 (1,800,000)	1,800,000	약학과	20062746	장지민	4
나사모동문회 (1,000,000)	1,000,000	제약학	20062725	유정욱	4
약품물리 화학반동문회 (500,000)	500,000	제약학	20062748	전신정	4
한미약품 (4,659,000)	교수연구 지원금				
합 계 : 18,459,000					



눈꽃 피던것이 엇그제 같은데 벚꽃이 활짝피서 완연한 봄의 자태를 뽐낸다. 그리고 그 훈기는 벌써 여름을 재촉하는듯 주위를 데운다. 겨울잡을 잔 동문들의 소식이 이제야 늦게 전해진다. 경제한파로 얼어붙은 약업계 경제사정 악화로 제작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문회보가 의약분야 시작되던 2000년 7월 창간된 이후 이번까지 24호를 내면서 편집위원장을 맡았었다. 그동안 격려를 아끼지 않은 동문선배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황공용(11회) 편집위원장

현대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인 학교폭력(이지메)는 호르몬분비이상인 경우가 많다

첫째 용의자는 사춘기에 분비가 많아지는 테스토스테론이다

부신에서 분비되어 남자다움을 만드는 이놈은 남성 호르몬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난폭한 성격을 만든다

제2의 용의자는 갑상선호르몬이다. 적당히 분비되면 생활력이 강한 적극적인 성격을 만들지만 지나치면 생각지도 못한 행동과 말과 과격할 폭력을 쓰는 경우가 많다.

최후의 용의자는 세로토닌이다. 뇌안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인 이 호르몬의 분비가 저하되면 아픈것에 민감하고 마음은 억제되지않고 폭력적인 성격으로 변한다.

저녁무렵 초조해지며 안절부절 소주생각에 몸부림치는 사연은 부족한 세로토닌이라는 설이다.

- 송진섭 동문 역자

호르몬을 알면 건강과 성공을 얻는다 중에서....

김기명(18회) 편집위원

세계 경제 침체 속에 지금 국회에서 논란 중인 세계개편안이나 의료보험, 연금은 물론 공교육개혁방향도 시장 제일주의를 주장 해온 미국조차 전폭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정책이 그 나라만의 특색이 있지만 그 동안 우리가 여러 방면에서 모델로 삼아온 미국이 지금 난국에 처했고 그 난국을 헤쳐 나가기위해 경제뿐 아니라 사회정책 일반에 일대 혁신을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의약품이 슈퍼로 가면 매출이 상승된다는 해괴한 사고방식으로 전문성과 안전성 관리는 왜곡된 채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김정수(26회) 편집위원

27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샅 틈 없는 멀티비타민 센트룸

이제부터 비타민 고를 땀
성분과 함량을 꼭 확인하십시오
14가지 비타민과 13가지 미네랄이
들어있는 멀티비타민 센트룸!
매일 채우기 힘든 영양,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센트룸으로 채워 주세요

샅 틈 없는 멀티비타민
센트룸 정
27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 센트룸은 처방이 가능한 멀티비타민입니다

▶ 제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www.centrum.co.kr 을 참조하세요

멀티비타민 센트룸 한 알에는 하루에 필요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어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 성분을 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결핍 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무기력감을 느낀다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	항상 피로를 느낀다
피곤한데 잠이 잘 오지 않는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Huons

Human · Medication · Solution

(주)휴온스는 인류 건강을 위해 40년간 약학적 해결책을 제시하며 웰빙 의약품을 전문 생산, 판매해 온 코스닥 상장기업입니다.

날씬한 그녀들도 고민하는 복부비만!



한 몸매 하는 당신도 뱃살고민은 있다!?

몸무게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체지방,
전신비만보다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마른비만은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아
복부비만이나 내장지방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동맥경화와 심근경색증 등
심장질환의 위험을 초래하는
복부비만!

복부에 피하지방이 많고,
변비가 있는 대한민국
남성, 여성분들에게 권합니다
18가지생약성분이 들어있는
동의보감 처방의 살사라진!

방풍통성산(防風通聖散)의 힘!

살사라진 정

▶당신의 비만도는?

- >복부비만 : 허리둘레 남성90cm, 여성80cm 이상 (동양인 기준)
- >중성지방 : 150mg/dl 이상
- >고밀도콜레스테롤 : 남성40mg/dl, 여성50mg/dl 미만
- >공복혈당 : 110mg/dl 이상 또는 당뇨병 치료 중
- >혈압 : 수축기 130mmHg 또는 이완기 85mmHg 이상

※ 위의 내용 중 3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비만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만은 단순한 다이어트 차원을 넘어,
건강을 해치는 **위험신호**입니다

제품특징

- 배 안쪽 복부에 지방이 많고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 동의보감 처방의 생약에서 추출한 농축액을 건조시켜 정제하였습니다



방풍통성산(防風通聖散)이란?

동의보감에 수재된 처방법으로 물안에 자기중독물이 쌓여 있는 것을 피부·비노기와 소화기를 통하여 배출하고 해독하는 데 사용하는 처방입니다. 당귀·적약·천궁·치자·연교·박하·생강·형개·방풍·마황 각 2g, 대황·망초 각 2.5g, 길경·백출·감초 황급·석고 각 3g, 활석 4g 등 18종류의 생약을 달여마시는 것으로 복부에 피하지방이 많고 변비가 있는 남성, 여성분들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의약품(약국에 있습니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광고심의필 : 906-0900**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www.salsarazine.com

검색창에 **살사라진** 을 검색해 보세요!

고객상담실 080) 447-4700

(주) 휴온스

KOSDAQ

서울도협 회장단

회 장 한 상 희 한우약품(주)

부 회 장	김 원 직	원진약품(주)
부 회 장	남 상 길	(주)남경코리아
부 회 장	허 경 훈	(주)건화약품
부 회 장	정 연 훈	제신약품(주)
부 회 장	주 상 수	(주)서울약품
부 회 장	성 용 우	백광의약품(주)
부 회 장	이 양 재	진웅약품(주)
부 회 장	고 용 규	(주)동우들
부 회 장	김 성 규	(주)송암약품
감 사	김 정 도	신탣약품(주)
감 사	정 춘 근	서창약품(주)
총무이사	홍 순 정	(주)미래약품



지압슬리퍼만으로 관찰을까요?
써큐란으로 해결하세요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혈액순환 장애!
이제 혈액을 잘 돌게 하는 써큐란으로 미리미리 혈액순환을 관리하세요.
써큐란은 서양산사, 멜리사엽, 은행잎, 마늘유 등의 복합생약성분이 함유되어
혈액을 잘 돌게 하는 혈액순환개선제입니다.

•용법·용량: 성인 남녀 1일 3회, 1회 1~2캡슐 •효능·효과: 혈액순환 장애에 의한 기억력 감퇴, 무기력증, 만성피로, 현기증, 집중력 약화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의하시고,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혈액을 잘 돌게 하는 써큐란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8번지
(테헤란오피스빌딩 1309호)

전화: (02) 565-1700 팩스: (02) 564-1701

E-mail: capa21@hanafos.com

<http://www.caupharm.or.kr>